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05호

Tuesday, September 24, 2024 A

“‘말장난’ 과 ‘경박함’ ... 갈 길 바쁜 해리스 잡나”

대선을 40여일 남기고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워드 샐러드 (Word Salad)’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워드 샐러드’를 직역하면 단어로 아무렇게나 휘저어 조합한 ‘샐러드’, 자세히 들여보면 아무 뜻도 없이 공허한 ‘말장난’을 뜻한다.

민주당 지지 성향 언론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인터뷰 자체를 꺼려왔던 해리스 후보가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피할 수 없이 여러 매체와 조우하면서, 달변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즉답을 피하고, 공허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답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폭스뉴스, 뉴욕포스트 등 보수 성향의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틱톡,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재생산돼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주 소셜미디어에서 급부상한 쇼츠 동영상에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종류의 문제를 두고 어떤 대답을 각자 내놓느냐는 것이다.

토론 후 주요 언론 등에 업고도 “격차 못 벌려” 각종 질문 받고 ‘딴소리’ ... 소셜 미디어 통해 ‘확산’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에서 해리스 후보가 답변하고 있다.

[로이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유세에서 자신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라고 밝힌 흑인 여성이 “심하게 오른 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 대책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며 “12개월 안에 에너지 가격을

50% 줄이고, 농업정책으로 미국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해 물가안정과 경제활성을 이루겠다”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난 19일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한 두시간짜리 온라인 특별 스트리밍 이

벤트 ‘미국을 위한 단결’에서였다.

질문을 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질문자와 같이) 모든 가정이 여러 물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기 힘들어졌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리스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 생필품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내놓았다. 장황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대선 후보의 정책 답변으로 볼 수 없는 수준 낮은 ‘말장난’이었다는 비판이다.

또다른 답변도 화제다. 이날 인터뷰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남부국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질문하자 해리스 후보는 “나는 검사 출신이고, 국경과 접한 주에서 두 번의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에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접했던 문제다”라며 3분간 초당적 국경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공화당을 비판했다.

이에 오프라가 “그 법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재차 질문하자 해리스 후

보는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알맹이 빠진 대답을 했다.

이렇게 19일 진행된 오프라 윈프리의 특별 스트리밍 이벤트는 “해리스를 위한 오프라의 특별 이벤트”로 불리며 해리스 후보의 지지도를 상승시킬 기회로 인식됐으나, 해리스의 ‘오답 퍼레이드’가 화제를 몰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보수 매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해리스 후보의 ‘워드 샐러드’와 ‘어수룩한 답변’은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토론에 해리스가 ‘귀걸이형 수신장치’를 몰래 착용하고 각종 답변을 제공받았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던지 않는 것이 트럼프 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또 한번의 친민주당 성향 매체 주관의 대선토론에 참여해 해리스의 이미지를 재고시킬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토론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 나온다.

박세웅 기자

“북한, 미국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충분”

신원식 “김정은 결심때 언제든 가능” 북한, 10월 말 오물풍선 5500개 날려 제작비 5.5억 추정 ... 쌀 970t 값어치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11월 대선 전후도 (핵실험이 가능한) 시점에 포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

STV와 YTN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해 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이라며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농축 우라늄 시설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영변 폐연료봉 추출, 나아가 핵실험 등 다른 행위를 통해 관심을 제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근평·이유정·박태인 기자

▶ 2면 ‘핵실험’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응단폭격’ 이스라엘이 23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스라엘군의 650차례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하루만에 1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헤즈볼라 역시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로이테]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폐입
순금 야기 불변지표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국회서 재판하나... 야당 “이화영·김성태 대질”

법사위서 검사탄핵청문회안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쌍방을 대복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열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을 회장을 불러 대질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한 증인·참고인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34명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등에서 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 핵심 증인 3명은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채택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박 검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그러나 처리를 막을 순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뿐 아니라 관련 재판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며 “재판을 끌고 온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외공직 도입(형법 개정안)과 검사 성적 매기기법(경찰청

법 개정안)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다. 이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외공직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 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기소가 안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곡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죄를 신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평가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 성적 매기기법’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검사 성적 매기기법은) 성범죄처벌 무죄율이 높은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문재인 “검찰, 나와 이재명한테도 이런데... 국민에겐 오죽하겠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나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면담했

다. 이 기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켓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만들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

히 (검찰의) 별건 수사가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정치 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기자

▶ 1면 ‘핵심협’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심협을 감행한다면 평교리 핵실험장의 3번 경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3번 경도는 2022년에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복구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신 실장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 두 국가를 수용하지”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협하며 해선 안 될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의한 화재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상황에 따라 단호한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재산과 인명 피해를

놓고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조치에 ‘레드 라인’을 언급한 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30일에도 북한이 화생방이나 위험 물질을 풍선에 담은 정황을 포착할 경우 “상응하는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와 제2 활주로 사이 상공에서 풍선이 두 차례 확인돼 오전 6시6분부터 6시26분까지 20분 동안, 오전 7시부터 7시17분까지 17분 동안 출발과 도착편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전날(22일)에는 오후 10시48분부터 11시42분까지 54분 동안 제3활주로와 제4활주로 사이에 낙하한 풍선을 수거하느라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했다.

지난 22일 오전에는 5개 안팎의 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통과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15일 서울 강서구, 8일 경기도 파주, 5일 김포공항 인근 등에서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합참이 밝힌 집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

례에 걸쳐 모두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1개당 제작비를 약 10만원으로 보고 북한 당국이 풍선 제작에 약 5억500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시세로 쌀 970g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합참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북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남으로 온 북한 풍선이 낙하한 뒤 수거한다는 기존 대응 방식은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부른 대응은 차질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국민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군은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면서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풍선의 발열 타이머 작동으로 인한 대형 화재 피해 또는 인명 피해를 북한의 의도성과 관계없이 레드 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도 포함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통해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회색시대 도발을 일삼는 것일 수도 있어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실장은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시대 도발의 경우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 적용되는 조건으로도 (레드 라인)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근영·이유정·박태인 기자

워싱턴 날씨 (°F)

| | |
|--------------|--------------|
| 25일(수) 73-69 | 28일(토) 73-62 |
| 26일(목) 79-68 | 29일(일) 76-58 |
| 27일(금) 77-65 | 30일(월) 77-59 |

9월 24일(화) 70~6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SOLD

축
창간 23rd 기념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동포들과 한인 사회를 위해 늘 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메릴랜드 프린스 한인회 회장 이옥희
수석부회장 겸 고문변호사 김용용 외 임원진 일동

VA조기투표 열기 “예상보다 뜨겁다”

버지니아가 지난 20일(금) 조기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예년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선거국의 에릭 스파이서 국장은 “현재 조기투표 참여 기세를 봤을 때 기존 기록을 갱신할 것 같다”면서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를 비롯해 조기투표 장소마다 주차장부터 현관문까지 수백여명의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전했다. 27년동안 페어팩스 카운티 선거국에서 일했던 스파이서 국장은 “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결기 같은 걸 느낀다”고 전하기도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조기투표 첫날 투표한 유권자는 지난 2020년 11월 대선의 1200명이 최고기록이었으나 20일 오후 7시 집계 결과 4232명에 달했다.

지난 21일(토) 오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조기투표에 참여한 한인 신 모씨는 “함께 줄을 섰던 사람

예년보다 두배 이상 참여 “대선 관심 반영”
페어팩스 첫날 투표자 4232명 신기록



들이 모두 투표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 같다”면서 “나 또한 여러가지 이슈와 함께 고민했으며 하루빨리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연방상하원의원, 시장, 시의원, 카운티 수퍼바이저, 교육위원 등을 선출한다. 우편투표 신청 시작일도 선거일 45일 이전인 9월20일이었다.

김욱재 기자

한인, 타깃 CFO에 선임 웹시코 임원 출신 짐이

대형소매업체 타깃이 한인 짐 이(사진)를 최고 재무책임자(CFO)로 선임했다.

이 CFO는 26년간 근무했던 웹시코를 떠나 타깃의 전 CFO 마이클 피델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그는 웹시코에 근무하는 동안 재무와 전략 부분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가장 최근에는 데퓨티 CFO(Deputy CFO)로서 세금, 재무, 투자자 관계, 환경, 거버넌스 등의 분야를 총괄했다.

타깃에서는 재무 계획 및 분석, 내부 감사, 사업 개발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CFO는 인터뷰를 통해 “타깃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로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MD 연방상원 후보, 불법 세금공제 사실 드러나

안젤라 올소브룩스 “몰랐다” 발뺌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안젤라 올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민주·사진)가 메릴랜드와 워싱턴DC에서 부당한 세금공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소브룩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래리 호건 전 주지사를 5~10% 앞



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스캔들’의 영향이 어떻게 선거에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올소브룩스 군수는 10년 넘게 거주주택에만 국한된 홈스테드 세금

공제를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싱턴DC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고령자 공제를 받아왔다.

올소브룩스 군수는 53세에 불과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통해 재산세를 절반이나 줄였던 것이다. 그는 허위 세금공제 신청을 통해 워싱턴DC 주택 재산세를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모두 1만4천달러 절약했다.

고령자 공제는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령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올소브룩스 군수는 이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1995년 이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거주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거주해왔다.

올소브룩스 군수는 이러한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발뺌해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올소브룩스 군수가 카운티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각종

세금공제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올소브룩스 군수 측은 할머니가 거주하던 주택의 모기지를 납부하다가 2018년 매각했으며, 할머니 명의의 재산세 납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듯하다고 밝혔으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타운하우스는 구매 후 렌트했으나 기본주택 거주자 세금공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북VA 데이터센터 공해 심각

지역정부 규제 허술

북버지니아 지역 데이터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당한 공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북버지니아 지역정부 데이터센터 위치 정보를 분석하면 전체 지역 주민의 20%인 56만명이 데이터센터 반경 1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연간 20개 안팎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허가되고 있는데, 2045년에는 지역 주민의

40% 이상이 반경 1마일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접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부터 페어팩스 카운티 서부지역과 라우든 카운티를 관통하는 고압전송 시스템이 지나가는 ‘전력 길목’에 전세계 데이터 센터 물동량의 60% 이상이 지나간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전자파 뿐만 아니라

소음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열기를 낮추기 위해 대형 팬과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염과 공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실내 온도 경감을 위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공조시스템도 공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곳의 데이터센터를 철거하면 폐컴퓨터 자재 뿐만 아니라 다량의 폐전선 피복 등을 남기며 보통의 제조업 공장에 버금가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버지니아 지역이 지정학적 잇점 외에 낮은 전기료 단가도 문제지만, 규제 문턱이 낮아 데이터센터 증식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용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OMNI에게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워싱턴 중앙일보

창간 23rd 기념

“ 워싱턴 지역, 한국 언론의 중심인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포들과 한인 사회를 위해 굳건히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



US 워싱턴한인회 회장 신동영

한인 시니어, '무법 스쿠터'에 충돌 사망

타운서 인도 위 불법 질주하다
한인 남성 친 뒤 뺑소니...수배
당일밤 병원 이송, 이를 뒤 숨겨
보행 잦은 시니어 안전 빨간불



로스리오 세르반테스 LAPD 공보관은 "이날 오후 4시50분쯤 해당 사고가 뺑소니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LA 한인타운 인도에서 불법으로 질주하던 전동 스쿠터와 한인 도니 김(65)씨가 충돌했다(사진 위 원안). 김씨와 충돌한 여성 전동 스쿠터 운전자와 뒤따르던 남성. [abc7-FOX11 캡처]

60대 한인 남성이 LA한인타운에서 불법으로 인도를 달리던 전동 스쿠터에 치여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인타운 서쪽인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와 사우스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인도 위로 전동 스쿠터를 몰던 한 여성이 한인 도니 김(65·사진)씨와 충돌했다. 충격으로 김씨는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김씨는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이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뒤인 14일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LAPD가 공개한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8분쯤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가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 선상 인도에서 각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버몬트 애비뉴 방향으로 빠르게 질주했다.

이때 앞서서 달리던 여성이 주차장에서 인도로 걸어 나오는 김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충돌 후 쓰러진 김씨는 누워있었으며 해당 여성과 뒤따라 오던 남성이 쓰러진 김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아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다.

피해자 김씨는 이날 사고 직전 차량을 주차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아내 제니 김씨와 함께 길 건너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내 김씨는 FOX11과 인터뷰에서 "남편 뒷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이 병원을 이송을 거부해 현장에서 치료만 받았다"고 전했다. 또 아내 김씨는 사고를 낸 전동 스쿠터 운

전자에게 현장에 남아있었다고 요구했으나 아내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말했다. 거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길거리마다 전동 스쿠터가 범람하고 있고 경찰 단속도 느슨해 적잖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행 이동이 잦고 동작이 느린 시니어에게는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스쿠터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LAPD는 확보한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섰다. 사건을 맡은 LAPD 올림픽경찰서(213-382-9102)는 추가 목격자들의 사건 관련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김씨와 아내는 내달 결혼 40주년을 앞두고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500불에 LA-일본·한국 왕복 노선

저가 항공사 집어어 화제
나리타-인천 왕복 200불선
국적기보다 최대 74% 저렴

#한인 신모씨는 내달 하순 한국 방문 길에 일본 여행에 나서고자 항공권을 알아본 끝에 일본 저가항공사 집어어(ZipAir)를 통해 LA-나리타 왕복 항공권을 281달러에 구매했다. 나리타-인천 노선은 저가항공사들이 워낙 많아 140~220달러 수준이라서 결국 500달러로 한국과 일본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특가 항공권으로 종종 화제가 되고 있는 저가항공사 집어어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갈 경우 국적 항공사 LA노선을 이용했을 때보다 절반 또는 그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검색 플랫폼 구글 플라이트

에서 내달 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일본 여행 일정으로 항공권을 검색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집어어 LA-나리타 노선 왕복 항공권 최저 가격이 395달러였다.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나리타-인천 왕복 항공권을 검색하니 제주항공이 141달러, 에어프레미아 203달러, 집어어 238달러, 아시아나항공 256달러, 대한항공 308달러 순으로 나왔다.

가장 저렴한 제주에어를 이용할 경우 LA에서 일본,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항공권 총 가격이 536달러에 불과했다.

한국 방문 기간을 더 늘려 9일부터 19일 일정으로 검색한 결과 에어프레미아가 206달러로 가장 저렴했으며 집어어 212달러, 진에어 214달러, 에어부산 215달러, 제주항공/티웨이 216달러, 아시아나항공 227달러, 대한항공 284



지난 19일 집어어의 LA-나리타 왕복 항공권 가격이 395달러다.

[웹사이트 캡처]

달러 순이었다.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하면 LA-일본-한국 항공료가 총 601달러다. 같은 일정으로 3개 국적항공사 LA노선 왕복 항공권을 구글 플라이트로 검색해 보니 에어프레미아가 954달러, 아시아나항공 1344달러, 대한항공 1847달러였다.

한국 방문 중 일본 여행에 나설 경우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료가 200달러 전후로 추가된다.

따라서 지난 19일 검색 기준으로 집어어와 한국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LA-일본-한국을 다녀오는 항공료가 3개 국적항공사로 LA-한국-일본 관광에 나설 때보다 적게는 54%부터 많게는 74%까지 저렴했다. 일정에 따라 국적항공사 항공료로 일본 여행경비가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일본항공의 자회사인 집어어는 저렴한 만큼 부가 서비스 등이 국적항공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기내식은 출발 48시간 전 온라인 또는 콜센터로 통해 사전 주문해야 하는데 LA-나리타 노선의 메뉴는 5가지로 각각 1700엔(지난

20일 환율 기준, 11,800달러)이다. 음료와 스낵은 250~350엔(1,74~2,40달러)으로 기내 구입이 가능하다.

담요, 귀마개, 안대, 목베개, 슬리퍼 등 어메니티 세트도 2500엔(17,36달러)으로 출발 48시간 전에 구매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집어어 탑승 후기를 보면 반반으로 갈린다. 불만으로는 특가 좌석 찾기 및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기내식·수하물 서비스가 유료인 데다가 사전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 기내 모니터링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청결하고 무료 기내 와이파이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등 가성비가 좋아 또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개인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자 상황에 맞는 항공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현희 기자

독감 및 COVID-19 백신 접종, 무료 건강 상담 및 검진, 혈액 검사가 한 자리에!

KCSC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이사장 김진아) 제 40회 VA 연례 건강 검진의 날

2024년 9월 28일 (토)

오전 9시 ~ 오후 12시

열린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Q: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 전문의와의 1:1 무료 상담
- ▶ 코로나 & 독감 예방 접종 (\$20 기프트 카드 증정)
- ▶ 혈액 검사 (B형 C형 간염, 콜레스테롤, 비타민 D, A1C, 갑상선 등)
- ▶ 초음파 검사 (복부, 산부인과, 갑상선)
- ▶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 ▶ 치과 스크리닝 및 치아 관리 상담
- ▶ 정신 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소개

“건강 보험 없이도,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건강 검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혈액 검사와 예방 접종은 사전 등록이 필수

QR 코드로 등록하기



SCAN ME

참여문의: 미숙 헤어 (VA 건강 증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T. 703-354-6345 / mhare@kcscgw.org

등록하기: <http://bit.ly/2024KCSCEALTHFAIR> 오른쪽 QR 코드를 핸드폰에서 스캔해주세요.



연준 '빅컷' 이후 모기지 락인 해소 전망

이자율 대폭 하락 가능성 적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예측된 9월에 들어서도 예비 바이어들은 시장을 관망했고 모기지 금리는 수주간 내림세를 이었다.

연준이 빅컷을 단행해도 기준금리가 모기지 금리를 직접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연동돼 바뀐다. 간접적으로 모기지 금리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의 피벗(금융정책 기조 변화)을 두고 부동산 업계는 거래 활성화보다는 모기지 락인(lock-in) 현상 해소에 기대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방 정부는 2022년 금리를 7번 인상했다. 그해 모기지 금리는 1월 3.4%에서 10월 7.12%로 급등했다. 2023년에는 더 올라 일시적으로 8%에 도달하기도 했다.

높은 금리는 더 많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해야 하므로 예비 바이어들이 집 구매를 연기했다.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모기지 시장은



정부의 빅컷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모기지 락인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은 LA 주택 밀집 지역. [중앙포토]

이들 이미 선반영해서 최근 이자율이 내려갔다"며 "이자율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연준이 11월에 빅컷을 한번 더 단행하고 추후 인하도 암시해 모기지가 5%선으로 내려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업계는 모기지가 5% 선으로 내려가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모기지 락인(lock-in) 현상 해소를 예상한다. 저금리 모기지를 보유한 주택 소유주는 고금리 시기에 집을 내놓기를 꺼린다.

집을 팔면 새집을 사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모기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 매물 부족이 악화하며 거래는 급감하고 집값은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만 되더라도 모기지 락인 현상이 나아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회성 빅컷으로는 팬데믹 초기 3% 미만 모기지를 가진 주택소유주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주택 중간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모기지 이자율 격차도 여전히 2%포인트 이상 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모기지뱅크협회(MBA)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09%로 떨어졌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빅컷도 시사하면서 모기지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주택소유주가 3% 중후반대의 모기지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집 매도가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2023년 말-2024년 초(6% 중후반과 7% 중반 때) 집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채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

태권도 미국 연수 추진

TPI와 한국 대학 스포츠협 양해각서 체결, 교류 확대

한국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에게 미국 연수 및 현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19일 미국 내 태권도 진흥 사업을 벌이는 TPI(Taekwondo Pride International)는 태권도진흥재단·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유단자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국 36개 대학 태권도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미국 태권도장 교육실습생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 자매결연 등을 통해 한미대학 스포츠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TPI 전영인 회장은 "한국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가 매년 1000명씩 배출된다"면서 "태



TPI 전영인(왼쪽) 회장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이종현 사무처장이 태권도인 교류를 알리고 있다. [TPI 제공]

권도학과를 전공한 인재가 미국 각지에 자리 잡은 태권도장 등에 교육 연수를 오면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태권도 유단자의 미국 진출도 유도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1세대 관장의 은퇴 시기가 다가와 도장마다 차세대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JP모건 "11월에 또 0.5%p" 골드만 "6번 연속 0.25%p"

추가 금리인하 엿갈린 전망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JP모건을 비롯해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주요 투자기관들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금융시장의 초조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연준은 지난 18일 기준금리 상단을 5.0%로 50bp(1bp=0.01%포인트) 낮췄고 연내(11-12월) 50bp, 내년 100bp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70bp를 가격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준 전망보다 금리가 더 공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월에도 50bp를 예상했

다. BofA는 연준이 연내 75bp, 내년엔 125bp를 추가 인하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봤다.

씨티그룹도 11월 50bp와 12월 25bp 등 연내 75bp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내년 25bp씩 여러 차례 추가 인하를 거쳐 최종 금리 상단이 3.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안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금리가 25bp씩 연속적으로 더 오래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이를 통해 금리 상단을 최종적으로 3.5%에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도 연준이 연내 2차례 및 내년 상반기 4차례 등 내년 중반까지 25bp씩 연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봤다.

FTC, 페이스북·유튜브가 사용자 광범위 감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틱톡, 트위터, 레딧, 스냅챗, 디스코드 등 13개 플랫폼(9개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정보 수집·사용·보관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들이 이용자를 광범위하게 감시(vast surveillance)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도 수집대상이었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13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소년을 성인처럼 취급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기업별 구체적인 조사 결과

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연령과 성별은 물론 사용하는 언어와 교육 수준, 소득 및 결혼 여부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고,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FTC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도 효과가 없었다며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서유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퓏뉴스, 리치몬드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7-10/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 | | | | |
|---|--|---|---|---|
|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네타냐후 “힘의 균형 바꾸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집단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회의에서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에서 힘의 균형, 안보의 균형을 바꾸겠다고 약속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정책은 그들(헤즈볼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협을 선제 제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시설을 제거한다며 레바논 남부와 동부 300여곳을 폭격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기자회견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날 폭격으로 어린이와 의료진을 포함해 18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폭격으로 발생한 일일 최다 인명피해다.

은행들, 고금리 시기 이자로 1조달러 횡재

미국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 2년 6개월간 무려 1조1천억 달러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연방예금보통금사(FDI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4천여개 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한 예금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데 비해 이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익을 올렸다.

일부 저축 계좌의 금리는 5%가 넘는 연준의 기준 금리에 맞춰 상승했지만, 대다수 예금자, 특히 JP모건체이스와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 은행 예금자들은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말 현재 미국 은행들의 평균 예금이자율은 연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이자율 0.2%보다는 크게 높은 것이지만 연준이 은행에 지급하는 오버나이트(하루짜리) 금리 5.5%



금리인하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파월 연준 의장.

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특히 JP모건과 BofA의 평균 이자율은 연 1.5%와 1.7%였다.

이러한 금리차로 은행들은 1조1천억 달러의 초과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은행이 벌어들인 전체 이익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많은 분석가는 2022년 3월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시작할 때 핀테크들과의 경쟁,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 이동이 쉬어진 점 등을 들어 예금자들이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로는 은행들이 과거 금리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초과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초과수익을 구가했던 은행들은 연준이 지난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자 그 인하분을 예금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시티은행과 JP모건 등 주요 은행 직원들은 은행 주요 고객들이 적용받는 예금금리도 연준의 인하 폭만큼 내릴 것으로 들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FT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900여 금융회사에 리스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리스크관리협회(RMA)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주유소가 통상 가격 인상은 빠르게 하는 대신 인하에 느장을 부리는 것처럼 은행도 예금 이자율 인상은 느리지만 인하는 신속하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 일부 정부는 이러한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했다고 FT는 덧붙였다.

머스크 “무인우주선 5대 발사 예정”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년 안에 5대의 무인 스타십(달·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륙한다면 4년 후에는 유인 임무가 가능하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유인 탐사는 2년 더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착륙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스페이스X는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의 수를 가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우리는 우주 여행자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핵전쟁이나 슈퍼바이러스 창궐, 인구붕괴 등의 재앙에 대비해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 하에 우주선 시험비행을 해왔다.

그는 지난 4월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스타십은 지난 6월 4번째 시험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한 후 폭발 없이 귀환에 성공하면서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머스크는 이날 화성 개척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 민주당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동시에 비판했다.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그는 “내가 현재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스타십 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는 산다미 같은 정부 관료주의에 의해 질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집권할 수도 있는 카말라(해리스) 정권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을 질식시키고 있는 관료주의가 민주당 정부하에서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는 화성 계획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우주를 선도하고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머스크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우리는 (올해 대선에서 재선할 때) 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화성에 도착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일론 머스크와 이야기해 로켓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소개한 엑스 게시물에 “그 래요(yes!)”라는 댓글을 달았다.

양치기 소년 된 러시아... “핵위협 효과 사라져 부심”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서방을 겨냥한 핵 위협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 부심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년 7개월간 횡수를 세기 어려울 만큼 자주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탓에 이제는 강도 높은 인사를 동원해도 진지한 반응을 얻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러시아 크렘린궁 내부에서도 핵무기 사용 위협이 효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자들은 수위 높은 경고를 앞다퉈 쏟아내 왔다.

러시아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전문가로 꼽히는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는 심지어 12일 일간 코메르산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제한적 핵공격’을 거론하기도 했다.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술핵을 쏜다면 핵무기를 사용해도 상호확증 파괴와 인류멸망으로 이어지는 전면핵전쟁으로까지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카라가노프는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도 19일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핵공격이나 국가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쓴다는 현행 핵교리를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방이 러시아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달리 이제는 핵무기 사용 관련 언급 횡수가 누적되면서 그런 언사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핵 경고가 넘쳐난다”면서 “이미 그런 발언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도 겁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익명의 러시아 학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핵 옵션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

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에 속하는 협력국들이 불만을 지닐 수 있고, 군사적 관점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러시아 정치 관련 컨설팅 회사 R.폴리텍 설립자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핵무기 사용이나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공격은 “푸틴은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다른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만 고려할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선 러시아의 핵위협이 과거만큼의 효과는 없어도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차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대선 쟁점으로 부각하며 핵전쟁을 막기 위해선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최근 대선출마를 중단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지난 17일 정치전문지 더힐에 실린 기고문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주니어와 케네디 주니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때릴 수 있도록 한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를 핵 충돌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빌
첼트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진료
과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the Greater Washington

50주년 기념 행사

이번 교협 5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미국 이민 역사와 워싱턴 지역의 한국 교회가 이룬 성과를 기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2024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50주년 기념위원회

| 위원장 | 이병완

| 명예고문(지역출신) | 김상복, 이동원, 이영훈 **| 상임고문 |** 김택용, 정인량

| 대외고문 | 류응렬, 김영진, 김용훈 **| 법률고문 |** 박상근, 윤유식

| 증경회장자문위원 | 김택용, 김상묵, 최윤환, 박석규, 황수봉, 허중호, 이원희, 지선묵, 오광섭, 김종철, 임종길, 정인량, 양광호, 정영만, 김재동, 이병완, 김양일, 김성도, 배현수, 차용호, 김범수, 최인환, 노규호, 손기성, 한세영, 한 훈, 김재학, 이 범, 임헌묵, 심대식, 박엘리사

| 대외자문위원 | 김대영, 김요셉, 박승진, 박석규, 이원희, 임종길, 임용우, 손형식, 이성자, 이광현, 김영봉, 한상인, 고현권, 박성일, 문정주 (지역교단대표), 안성식, 최시영, 윤창재, 권일두, 이해갑, 황성철, 한세용, 김택조 (무순)

| 특별협력위원 | 백 순, 김종택, 정세권, 김영호, 홍희경, 헤롤드변, 공명호, 이근선, 최정범, 이은애, 이인천, 조지영, 스칼렛혜경, 이정실 (무순)

| 사무총장 | 손기성, 김범수

| 재무위원 | 문선희 **| 행정위원 |** 정승욱

| 기획위원회 | 정영만, 김재동, 김성도, 배현수, 차용호, 김범수, 손기성, 이 범, 심대식, 전찬선, 이택래, 김광근, 김영천, 문선희, 최정선, 김영호, 정성욱 (무순)

| 실행위원회 | (현 교협임원) 박엘리사, 전찬선, 김진이, 최재종, 최문종, 배길수, 김봉묘

| 50주년후원회 | (후원회장) 문선희 외 교협 전 평신도부회장 및 재정이사장 전원

| 홍보위원회 | 한 훈

| 협력유관단체 |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 (회장: 이택래),

워싱턴지역목회연구원 (원장: 문정주),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회장: 김택조),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구 워싱턴신학대학이사장: 문선희), 워싱턴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범수),

처치클리닉 (대표: 손기성),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정승욱), 한미나라사랑기도회 (회장: 오쾌한),

프레션 (대표: 김대영), 워싱턴기도연합 (대표: 송제오), 한미기독교장학재단 (이사장 김택용 목사),

워싱턴밀알선교회 (대표: 정진정), 버지니아크리스찬대학 (총장: 이광현), 워싱턴침신대학 (총장: 장만석),

워싱턴북한선교회 (이사장: 신덕수), 굿스폰 (대표: 김재역) 비라카미선교회 미주지역본부 (대표 문선희) (무순)

| 대외협력언론 | 중앙일보, 한국일보, 만나24

예정 사역들

- 교협50년사 발간 (간사: 김광근 목사)
- 교협희년(교협50주년맞이) 감사영광예배
- 교협희년(교협50주년맞이) 감사영광음악회
- 포럼: 교회론(예배와 선교)
- 교협 희년맞이 정신에 걸맞은 행사 준비
- 교협을 빛낸 사람들(가칭) 선정

**“교협 50주년 발간사를 위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의미있는 자료들을 소장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용한 자료는
소중히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자료 및 연락처

wkcc50@gmail.com

문의

손기성 목사 / 김범수 목사
703-725-6468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협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수고와 단 1불이라도 역사기록물이 될 교협50년사에 모두 기록에 남겨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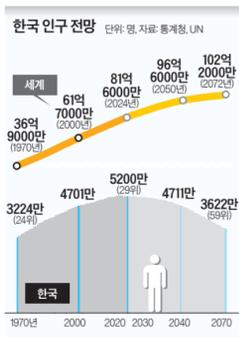
교협49대 회장 박엘리사 목사 / 50주년 기념위원장 이병완 목사

한국, 2072년엔 65세 이상이 48% ... 세계 2위 '늙은 나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 더 많아져
중위연령도 46.1세→63.4세 올라
인구 3600만명, 세계 29위→59위



전남 강진군 움천면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48명(406세대)으로 전국 읍·면·동 가운데 가장 적다. 23일 이 마을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



48년 뒤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인구수는 360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과 지난 7월 유엔(UN)이 낸 '세계 인구 전망 2024'를 종합 분석해 낸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70.2%에서 45.8%로 축소한다는 게 통계청의 관측이다. 생산연령인구보다 생산연령인구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고령인구가 더 많아

질 거라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는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유소년인구(0~14세, 2072년 6.6%)도 부양해야 한다. 같은 기간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46.1세에서 63.4세로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47.7%)는 세계 236개 국가(지역 포함) 가운데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

(50.8%)에 이어 3번째로 높을 거란 관측이다. 국가 기준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 순위는 2위로 올라간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의 전체 인구가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가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인구의 축소세는 두드러진다. 한국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72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31%를 나타낼 전망이다. 결국 세계에서 한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6%에서 0.4%로 3분의 2가 될 전망이다. 한국 인구의 세계 순위는 29위에서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거라고 통계청은 본다.

이런 예측의 배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2.25명)보다 낮다. 도시국가인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최하위다. 올해 수치는 0.70명 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72년엔 1.08명으

로 다소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여성이 가입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하면 사정은 다소 개선된다. 남·북한 총인구는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25%가량 낮아질 거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남한 수치만의 변화율(약 -30%)보다 완만한 기운이다. 같은 기간 남·북한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16.9%→39.3%,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69.7%→51.3%로 변화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북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양호한 덕분에 풀이된다. 지난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78명으로 남한(0.72명)보다 높다.

한편,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91.1세)과 같은 수치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한전, 4분기 전기료 일단 동결 ...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

43조 적자에도 6분기 연속 동결
폭염에 급증할 가계 부담 고려

한국전력공사가 올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에 따라 일반 가구에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전은 4분기 전기료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와 같이 kWh(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하거나 빼 산정한다.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려 받을 수는 없다. 전기요금을 더 올리려면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을 단행

해야 한다. 전기료는 지난해 2분기 인상된 뒤 6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앞서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전기요금을 정상화(인상)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전이 43조원대의 누적 적자와 2023조89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압력은 점점 커

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가계기업 어려움이 커지는 점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은 윤 정부 들어서 약 50% 인상됐다"며 "국민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상을 계속 미루면 향후 부

담이 더욱 커진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금 조금 올리면 될 것을 내년엔 많이 올리는 것은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11월부터라도 전기요금을 조정해서 한전의 재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미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요금 추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임민경 기자**

"텃밭 뺏길라" ... 전남 영광 달려간 이재명

민주, 재선거 앞두고 지도부 총출동
조국 "민주당 상한 물 비방, 과하다"

다음 달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지는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텃밭 정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혁신당)" "본진과 쇠빙선"를 함께 외치던 양측이지만, 지금은 외나무다리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3일 민주당이 전남 영광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영광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네 곳(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중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 방문한 지역이다. 이재

명 대표는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도입을 약속하며 "동네가 살고, 인구가 다시 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융 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영광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텃밭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곡성은 안전하지만, 영광은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지지를 차이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지난 10~11일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를 득표해 29.8%를 득표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조) 영광은 역대 9번 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세 차례 당선되는 등 민주당에선 '텃밭 속 힘지'로 꼽힌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군수 선거가 아니라 2026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으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겨냥해 "일부 후보가 경쟁 체제를 벗어났는데, 이런 식이면 민주당의 성장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각 당 지지층을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라"고 맞박았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에 대해 (민주당에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방하는 분이 있는데 과하다.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상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10·16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장세일 후보와 함께 영광군 텃밭시장 찾아가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

강보현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수잔 김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 할인



★세일기간★
9/1~9/31까지
선착순 한정세일

여성의류

50% OFF

COUPON

겨울이불

50% OFF

COUPON

잠옷, 내복, 모자, 가방, 강아지옷

20% OFF

COUPON

시즌이불

20% OFF

COUPON



깊이가 다른
1도 제어기술!

혜택이 가득한 가을 세일 이벤트

숙면, 기술을 써!

대한민국 숙면의 기술 |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매트
10% off!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쾌적 숙면 가전/무전자파/1mm 초슬림매트/분리난방/보조난방,
숙면모드/살균모드/다중안전장치/차일드락/타이머 등등

카본매트
20% off!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쾌적 숙면 가전/직류 저전압/전자파 안심/
분리난방/Wi-Fi/스마트히팅케어/슬립케어
시스템/원격외선/이지워셔블/다중안전시스템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곰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 하하핑크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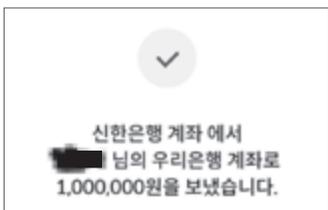
영업시간
9:30am ~ 8pm
(365일)

“구속된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돈벼락을” ... 엇나간 후원행렬

의대학부모연합선 1000만원 전달
의사 커뮤니티 후원인증 이어져
“명백한 범죄 두둔 안돼” 비판 커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의 정모씨를 후원하는 의사 등의 모금이 이어졌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감싸는 의료계 모습에 감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대의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지난 22일 정씨 가족에게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는다는 명목이다. 전의학연 측은 “추가 특별회

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도 정씨를 후원하는 인증·독려 글이 이어졌다. 피부과 원장이라는 이용자는 500만원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캡처 사진을 올리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2차 인증하겠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100만원 송금을 인증하며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고 썼다. 10만원을 송금했다는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올렸다. 지난 22일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는 “구속



의사 커뮤니티에서 인증글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독자]

된 전공의는 사법 농단에 희생된 의료계 잔다르크”라는 주장도 올라왔다. 의료계 일각에선 블랙 리스트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내부 반응은 적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의사 A씨는 “의료계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는 돕지 않는다”며 “피해자도 돕겠다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명백한 범죄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두둔해선 안 된다”며 “의사 집단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자성하고 환자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되레 옹호·지지하는 반응을 보이니 환자들로서 자괴감과 무력감만 느껴진다”며 “정부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3월 ‘참의사리스트’, 지난 7월 ‘감사한 의사명단’(정씨), 최근 ‘감(굴)사(랑)한 의사’ 등 1~3차에 걸쳐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차 블랙리스트 혐의자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정중훈·이찬규·이영근 기자

전국서 학원 가장 많은 곳 화성시

동탄신도시 중심 학원 개설 폭증
작년 사교육비 27조, 3년연속 늘어

정부가 10년 넘게 사교육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교육열이 높은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원 수가 급증했고, 사교육비는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교위가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경제학과) 연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학원 수는 지난해 기준 총 8만 8738개로 2007년(6만 7649개)보다 31% 늘었다(교육통계연

보 기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만 4422개)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1만 4832개)·경남(6279개) 순이었다. 학원 외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등 사교육 서비스 업종을 폭넓게 포함한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에서도 수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전국의 기초 시·군·구 가운데 학원·교습소 등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화성시였다. ‘사교육 1번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3679개)보다 많은 3911개의 학원이 있었다. 화성시 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유입이 늘어나며 학원 개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뒤이어 대구 수성구(2867개), 경기 성남시 분당구(2622개) 등의 순이었다. 이 지역 사교육 시장은 이듬해에도 커졌다. 경기도 화성시는 1년 새 학원 370개가 늘어 4281개가 됐다. 서울 강남구(3724개), 대구 수성구(2968개), 경기 성남시 분당구(2782개)도 모두 학원 수가 늘었다. EBS 수능 연계정책 등으로 2015년 17조 8000억 원까지 감소했던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 연속 반등해 지난해 27조 원을 돌파했다. 연구팀은 각종 사교육 경감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시험에서 교과과정 범위 외 출제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은 “선행 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고, 중 1 중간·기말시험을 없앤 자유학년제에 대해선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소득이 높은 학



드디어 꺼내 입을 가을 옷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긴 소매를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생들은 이 기간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초등 1·2

학년 영어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민지 기자

UAE, 삼성전자·TSMC 반도체 공장 유치 추진

WSJ “삼성전자 경영진 UAE 방문”
물·인력 적지만 현금 동원력 강점
AI 서비스와 결합 댄 큰 시너지 기대
인텔 등 제조 큰손, 해외 진출 고심

중동이 반도체의 ‘큰손(투자자)’에서 ‘공장주’로 변신을 노린다.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석유 부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할 뿐 아니라, 자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와 TSMC가 UAE에 대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UAE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TSMC 최고경영진과 삼성전자가 위 간부가 각각 UAE를 방문했다는 것. WSJ는 이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약 133조6000억원) 규모이며,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자금 조달을 맡게 될 거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중앙일보 문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고, TSMC는 블룸버그에 “지금 밝힐 새로운 투자 계획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간 중동은 AI·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큰손이었다. AI를 석유 다음의 먹거리로 삼으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엔비디아를 대체할 AI 반도체’ 구상 같은 대형 프로젝트마다 자금줄로 거론

됐다. UAE 국영 AI 기업 G42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기업 아랍코는 미국 그로크와 대형 AI 인프라 구축 계약을 맺었다. 지난주 UAE의 기술 전문투자사 MGX는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1000억 달러를 조달해 AI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협의했다. 그런데 이들이 자국 내에 반도체 제조 기지를 설립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무바달라는 세계 5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GF)의 최대 주주이지만, GF의 제조 기지는 미국에 있다. 무바달라는 GF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이 회사 주식 1

조2000억원 어치를 처분했다. 중동은 기후와 산업 특성상 반도체 제조 기지로 크게 고려되지 않던 지역이다.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다량 필요한 산업용 물과 엔지니어를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고, 기존 반도체 공급망과도 동떨어져 있어서다. 다만 ‘오일머니’의 현금 동원력과 값싼 전기료는 강점으로 꼽힌다. 반도체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AI 서비스와 인프라의 결합이다. 중동 부국이 주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에, 반도체 같은 인프라와 AI 서비스를 결합해 ‘AI 대중화’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무바달라는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엔트로픽 지분 5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AI와도 투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집들은 ‘중동이 중국에 AI·반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뒷문 아니냐’는 미국의 의심이다. 23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의 AI와 기술 협력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WSJ는 MS로부터 15억 달러(약 2조원) 투자와 경영 참여를 받아들였는데, 미국의 의심을 불식하고 AI·반도체에서 미국과 밀접 협력하기 위해서다. 삼성·TSMC·인텔의 해외 전략은 더 복잡해지게 됐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국내 생산’ 기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해외 제조기지를 설립하는 중이지만, 인력·자금 확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심서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 페어팩스 싱글홈 | 페어팩스 타운홈 | 센터빌 타운홈 |
|---|---|---|--|
| | | | |
| \$1,250,000 | \$750,000 | \$699,000 | \$569,000 |
| **방4/화3.5/차고2. Mar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 ** 방3, 화 2.5/ 차고 2 ** Mar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더, Bathrooms) | **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고깃집 망한 뒤 음식 배달... 어린 세 자녀 떠올리며 버틴다

59 **창간기획**
2024 자영업 리포트

서울 중랑구 고깃집 망한 김경식씨

몸 하나로 20년 만에 일군 식당
코로나 배달붐 타고 장사 잘했지만
수수료 오르고 가게 옮기자 적자
파산 뒤 음식 배달로 다시 생계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너무도 힘들어 '나쁜 선택'을 하려 했던 그를 다행히도 운명이 좌절시켰다. 다시 일어난 그의 눈에는 마침내 터널의 끝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김경식(46·가명)씨에게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만한 학력이나 기술, 특기가 없었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자신의 표현대로 '몸 파는 것' 말고는 모든 일을 다 해봤다.

막노동, 공장 노동, 덕트 설치, 도배, 주점 웨이터, 음식 배달, 휴대폰 판매업 등을 두루 거쳤다. 구두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유압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고깃집의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온 건 가장이 된 이후인 2019년이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옛날 가게는 호황이었다. 그는 몇 개월 뒤 점주와 협의해 권리금 2000만원에 그걸 인수했다. 그 직후 코로나 사태를 만났지만 가게는 오히려 더 잘나갔다. 막 성장하기 시작하던 배달 플랫폼에 올라타면서다. 그가 자리한 곳은 그 지역의 요지였다. 앱 수수료나 배달비용이 비싸지 않던 시절이라 그는 월 3300만~35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순이익도 800만원을 넘어섰다.

암운이 몰려온 건 2020년 말이었다.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오더니 "숯불 고기 구울 때 나오는 연기 때문에 주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태 전환을 요구했다. 그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나가 달라"는 요구가 뒤따랐다. 임대계약 만료일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시절이었다. 항의하던 그는 건물주의 손에 쥐어진 폐렴 진단서를 본 뒤 뜻을 접었다. 그리고 쫓기듯 급하게 옆 동네인 망우동으로 가게를 옮겼다.

새 가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옛 단골들의 거주지와 멀어지면서 배달비가 1000원에서 3500원의

자영업 시리즈 키워드

- 1 현실
- 2 빈곤
- 3 고령화
- 4 굴레
- 5 해법



김경식씨가 거주지인 임대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생각해 잠겨 있다. 그는 구청에서 취업 상담을 받는 등 치열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로 뛰었다. 그들은 빠르게 대체제를 찾았고, 주문은 급속도로 줄었다.

다급해진 그는 돈을 내고 배달 앱 고객 리뷰에 우호적 댓글을 달아 주는 업체를 이용했다.

점심 메뉴만 따로 파는 '숍인숍'이 괜찮다는 말에 몇백만원을 내고 순두부찌개 같은 음식 재료를 공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출만 늘었을 뿐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비용을 하회했다.

육체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일이 잦아든 뒤 밤시간에 몰아 먹곤 했던 그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심리 상태는 더욱 불안해졌다. '배달 생태계'의 고착은 '고객 갑질'의 증가로 이어졌다. 환불 요구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주당 평균 4~5명의 고객이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나 환불 요구를 했다. 그때마다 그는 배달 플랫폼 측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돈을 토해내야 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보내면 신나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주방에 주저앉아 평평 운 적도 있었죠."

적자가 지속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은 9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심적 압박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을 때 그는 모텔방을 잡았다. 그리고 열 개 남짓한 알약들을 한

꺼번에 털어넣었다. 천다행으로 그 약들은 그를 앓아가지 못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직 집사맡은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모텔에서 술 먹고 낮잠 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일을 뺐었던 삶을 되찾은 그는 부인과 아직 어린 세 아이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다. 헛된 미련은 버렸다. 2023년 4월 그는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세차장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부인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탤었다.

그는 그해 10월 법원에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았다. 그러나 새출발에 나선 그의 앞길은 밝지만은 않다. 40대 중반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돌아가기에는 나이가 많고, 아파트 경비를 하기에는 어리다. 그는 일단 음식 배달을 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해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 91만 명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특별취재팀



폐업 후 정식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경식(가명)씨가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오르고 있다. 개인파산 후 어렵게 자금을 융통해 구입한 그의 생명줄이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오복방앗간에서 김용원(72)씨가 잠시 쉬고 있다. 아예 가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방앗간으로 업종 전환했다 그는 나이가 많아 2~3년 안에 가게를 접을 생각이다.

벼랑끝 몰렸어도 길은 있다 개인파산·회생 신청도 선택지

송과구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이현주(39·가명)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변제 독촉 전화와 대출 권고 전화가 빗발쳤다. 너무 괴로운 전화를 끊다가 다시 꺼내면 늘 수십 통의 부채증 통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였다.

"나쁜 선택"에 대한 유혹을 간신히 이겨낸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그 결과 3년 6개월간 매달 105만원씩 총 4000여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억 원에 가깝던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압박이 해소돼 심리 상태가 안정됐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게도 선택지는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그것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면

책 결정까지 받아내지 못하면 법률상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 불어나면서 변제 독촉 전화와 대출 권고 전화가 빗발쳤다. 너무 괴로운 전화를 끊다가 다시 꺼내면 늘 수십 통의 부채증 통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였다.

중양일보가 서울회생법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2347건이던 자영업자(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이듬해 580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1~8월에만 3415건에 이를 정도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이 경제적 사망 선고가 아니라 금융복지라는 식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인근 법원 사법 접근센터나 회생법원 상담센터 등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미극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재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실침구학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TV TRAVEL CHANNEL 서울미극한방병원 방영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 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객관적 분석이 한국 사랑의 길” 국제 한국학 원로의 고언

지난 9월 13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1984년 이후 40년간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한국연구소를 이끌면서 발전시켜 온 카터 에컬트(Carter J Eckert) 교수의 은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에컬트 교수의 제자와 동료 교수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찌 보면 한 교수의 은퇴를 축하하는 단순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한국학과 한국사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세계 한국학의 시작을 알린 1세대에 이어 세계 한국학을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아류가 아닌 국제지역학의 한 분야로 우뚝 세게 했던 2세대가 현역에서 물러나는 순간이었다.



세계 한국학 1세대

세계 한국학의 1세대로 유럽에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교수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교수와 제임스 팔레(James B Palais) 교수가 있었다. 세 학자는 모두 조선시대 연구자로 도이힐러 교수는 여성 지위의 관점에서, 와그너 교수와 팔레 교수는 신분제도와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 이전 한국의 역사를 밝히고자 했다.

1세대 연구는 한국의 연구자들과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와그너 교수는 족보와 과거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의 신분이 4개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조선의 양반이 고려시대의 귀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를 신분제보다는 근대적 성격을 갖는 관료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한국 역사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팔레 교수의 조선시대에 대한 분석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팔레 교수는 신분별 인구 분석을 종합해 조선의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고정된 신분제, 중앙집권적이지 못한 왕권제, 그리고 중국의 보호로 인해 500년 동안 발전하지 못한 정체 사회로 분석했다. 실학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가진 고대 한당유학(漢唐儒學)적 특징을 강조했다.

2세대 커밍스가 준 충격

팔레 교수의 분석은 중국·일본과는 다른 조선의 특징을 찾음으로써 중국학과 일본학의 아류에 머물러 있던 미국에서의 한국사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근대’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특징을 부각함으로써 한국의

카터 에컬트, 브루스 커밍스 등 2세대 한국 학자들 속속 은퇴 중국학과 일본학 그늘에서 벗어난 독자적 지역학 위상 구축 은퇴 에컬트 하버드대 교수 “어렵더라도 자료 포기하지 말라” 서구와 다른 근대화 과정 관심… ‘식민지 근대화론’ 연관 논란도

역사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팔레의 제자이자 고려시대 연구자였던 존 덩컨(John B Duncan) 교수(UCLA)는 “특정점을 찾는다는 게 ‘하필’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오해를 만들 어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1세대 학자들의 노력은 에컬트 교수와 마이클 로빈슨(Michael Robinson) 교수(인디애나 주립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교수(시카고대)로 이어졌다. 1세대 학자들이 주관미군과 관련 있었다면, 2세대 학자들은 주로 197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2세대 학자 중 한국에 먼저 알려진 학자는 커밍스였다.

그가 출판한 『한국전쟁의 기원』은 한국학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주지하듯이 커밍스의 연구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주류를 수정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마침 이 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이 출간되었다. 수정주의는 베트남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약소국의 독립운동을 억압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관점이었다.

에컬트와 식민지적 근대성

커밍스가 한국 학계에 준 충격은 지대했지만, 세계 한국사학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에컬트였다. 그의 연구 경향은 커밍스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에컬트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

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팔레의 입장을 계승하여 조선시대 내에서 서구식 근대화의 씨앗을 찾는 것보다는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한국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에컬트의 입장이었다.

에컬트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에 민족주의적 입장이 필요했지만, 이런 입장이 다른 한편으로 한국 역사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관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에컬트는 서구와는 다른 한국적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식민지 시기 한국적 기업의 탄생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동료들에 의해 ‘식민지적 근대성’이라는 연구로 연결되었다. 로빈슨과 신기욱 교수(스탠퍼드대)가 에컬트 교수와 함께 주도한 ‘식민지적 근대성’은 서구와는 다른 방식의 한국적 근대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중국이나 일본이 그렇듯이 1945년 이후 현대 한국 사회가 서구의 근대와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된 그 역사적 근원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 자본주의, 서구 잣대로 보지 말라

에컬트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적 근대성’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국사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해외 한국사학계의 대부분 연구는 식민지 시기 연구에 집중되었다. 국내에도 2000년대 이후 역사학과와 문

1세대 2세대



마르티나 도이힐러



카터 에컬트



에드워드 와그너



존 덩컨



제임스 팔레



마이클 로빈슨



브루스 커밍스



앤드루 고든

학, 그리고 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모던 보이’라는 개념 역시 ‘식민지적 근대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에컬트는 국내에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대의 기원을 일본 제국의 영향에서 찾고자 했고, 에컬트와 그 동료들의 책이 나성대 연구소와 관련된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번역되거나 인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비판적 입장에서 초기에는 에컬트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국내의 학자들을 경계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에컬트를 비롯한 2세대 학자들의 생각은 일본 제국의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긍정이나 부정의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역사에서 ‘객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서구와 달리 시장과 노동에 대한 강한 국가의 개입이 있었던 한국적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일갈

최근 박정희에 대한 저서를 출간한 것도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근대가 박정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체화되었고,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외화되는 모습을 찾고자 한 것이

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학문적 결과가 일부 국내 학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팔레와 함께 2세대 학자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노동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았다.

에컬트는 자신의 책(『제국의 후예』)이 미국에서 출간된 지 17년 만인 2008년 국내에서 간행된 이후 자신의 책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유사했던 하버드대 법대 존 램지어(John M Ramseyer)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에컬트와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교수(하버드대 일본역사)는 램지어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맺은 실제 계약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본인 계약서를 잘못 인용한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안부 시스템이 고안되고 작동한 식민주의와 젠더 분야의 거대한 정치·경제적 맥락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을 사랑하는 법

에컬트 교수의 은퇴를 축하하는 학술회의에는 조선시대 연구자로부터 1980년대 비닐하우스 농법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스턴퍼드 대학에서부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은 앞으로 세계 한국사와 한국학의 제 3세대를 이끌어갈 학자들이다.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27년 전 필자가 하버드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자들 간에 전혀 소통이 없었던 27년 전과 달리 이제 하버드 및 우수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국내 학계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해외의 2세대 연구자들, 특히 에컬트 교수는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학자들을 초청했고, 한국 출신 연구자를 하버드 교수로 영입했으며, 한국 출신 학생들을 박사과정에 배출하여 우수 대학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은퇴한 덩컨과 커밍스에 이어 에컬트도 은퇴하지만, 그들이 했던 노력은 앞으로 세계 한국학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도 초록색 소나타를 몰고 다녔던 에컬트 교수는 은퇴식의 마지막에 두 가지 말을 제자들에게 남겼다. “한국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자료를 포기하지 마라.” **박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 | 매매 / 렌트 | 금액 | 설명 |
|-------|------------------------------------|---------------|--|
| ★ 주택 | McLean, VA | \$900,000 | 현재 3년 (\$4,20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
| | 8003 Fallstaff Rd., McLean | RENTED | UVA 교수로 아이 학문 때문에 이사 음 |
| | 825 N Wakefield Dr., Arlington, VA | \$2,700 | 주재원 3년 |
| |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 \$2,800 | One Park Crest 콘도 |
| ★ 사업체 | 델리샵 (DC) | \$150K |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 | 세탁소 (MD) | \$300K |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주소

- ★ 1*11 Fallbrook Ln, Vienna, VA
- ★ 1*02 Abbey Way, McLean, VA
- ★ 2*3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 ★ 1*89 Dawson St, Vienna, VA
-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 ★ 7*51 Tremayne Pl, McLean, VA
- ★ 4*11 11th St, Arlington, VA
-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 ★ 2*69 Oakborough Sq, Oakton, VA
- ★ 10*22 Baltusrol Ct, Oakton, VA
- ★ 1*36 Northern Neck Dr, Vienna, VA
- ★ 14*63 Travilah Rd, Rockville, MD

기간

세입자

- 2년 주재원
- 3년 교민
- 2년 교민
- 2+1년 국제기구
- 2년 교민
- 2년 주재원
- 3년 주재원
- 1년 주재원
- 1+1년
- 2년 주재원
- 3년 국제기구
- 18개월 주재원
- 3년 주재원
- 2년 주재원
- 2년 교민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당연히 가야 할 세제... 보수대 진보의 문제 아니다”

(세계시장 출신 전직 관료들)

지난 토요일인 21일 저녁 서울역 앞 계단.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주최한 '3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오후 6시30분으로 예정된 집회 시작 전부터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역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명 참가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주식투자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까지 가진 개인투자자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주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판단 잘하겠습니까.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이재명세(稅)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갑니다. 폭삭망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모인 500명(경찰 추산)의 집회 참가자들은 ‘금투세 시기상조, 선진 환경이 먼저’ ‘부자 외국인 감세, 민주당 매국노냐?’ ‘진성준 어디 감히 국민 위 군림하냐’ ‘국민을 이기려고? 민주당 지옥 가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예고된 집회시간이 되자 “주식 투자로 악전고투 끝에 유명을 달리란분들에 대한 묵념”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집회 사회자는 2019년 10월 설립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이 거둔 성과를 소개하며 두 번의 공매도 금지 연장, 금투세 2년 유예,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꼭 짚어 거론했다. 금융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했던 일련의 조치들이다. 주식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증시 정책에 한투연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셈이다. 곧바로 정의정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개인투자자, 금투세 '유예'도 반대

“금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서만 시행된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신흥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인도네시아보다 못한 후진국이다. 금투세 시행은 플라이업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한 행위다.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서 유예로 입장이 바뀌는 추세인데, 유예도 결사반대한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게 금투세 유예다.”

한투연 성명서에는 “후진적 증시 환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단기 폭락 후 장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등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최운열

이용우 전 의원 “증시 충격? 서학개미도 양도차익에 과세”

최운열 전 의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또 공포마케팅하냐”

대통령에게 증시대책 누가 조언했나... 유예보단 일단 실시를

13가지 이유가 담겼다. 농어촌특별세와의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항목 등 일부는 수긍할 만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일방적이거나 논쟁적인 주장이다.

금투세는 이미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는 조건으로 ‘금투세 기준 완화 후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들고 나오면서 ‘금투세 2025년 시행’으로 가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금투세 실시’ 입장과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 사이에서 고심 중인데, 24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으로 당론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금투세 논쟁을 ‘꽃놀이패’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서다. 한투연은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치에 불과하다”며 폐지만을 주장한다. 한투연 카페에는 국민의힘 인스타그램의 ‘금투세 10문10답’이 ‘필독’으로 표시돼 올라와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이점 사라져 투자자 이탈 가속화 ▶금투세 과세대상자는 개인투자자 상위 1%(14만 명)이지만 이들이 개인 보유 주식액의 53.1%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커 시장 급락이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대만과 같은 정책 혼란과

시장 불안 초래 ▶급성장한 채권 시장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불확실성 해소 위해 유예·보완보다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마뜩잖을 수 있다. 펀드 매니저 출신의 50대 전업 투자자 김모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던 국내 증시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는 건 사실”이라며 “개인들의 국장(국내 증시) 탈출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기대수익률 높으면 세금이 문제 안 돼”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현안으로 떠오른 현실 자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금융전문가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는 개별 세목 하나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규모 세수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전체 세제를 보면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토론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출신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금투세 실시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서학개미는 이미 연 250만원 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낸다”며 “기대수익률 높은 시장에는 추가비용을 내고도 간다. 세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2년 더 유

예해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법은 문제인 정부 작품이지만 그 이전의 보수정권 때부터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산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2월 국회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홍범교·이상엽) 보고서에서 “자본이득 과세가 지극히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현재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법상 금융소득이 이자와 배당소득에만 국한돼 있는 비정상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금투세, 형평성·효율성 높이는 세금

금투세가 왜 필요한지, 지금 금융세제는 뭐가 문제인지 보고서는 조목조목 짚었다. 금융상품에 따라 과세가 제각각이어서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과세하지만 채권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상품의 매매차익 같은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금융상품별로 세금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 결정을 왜곡해 조세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세제가 복잡해 세금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커진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관료 세 명에게 금투세 입장을 들었다.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에서 각각 세제실장을 지낸 이들이었지만 대답은 같았다. “세제 차원에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은 금투세 시행과 함께 시장 충격

을 줄이고 소득별 과세의 격차를 줄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문했고, 다른 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세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는 “증시 폭락 우려는 과도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금융투자소득 제외 등 일부 보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의 설계자’로 불리는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금투세 논의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토로했다. 그의 현직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증권연구원장과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내고 금투세 도입 역사를 잘 아는 전직 의원 입장에서 인터뷰에 임했다. “전산화와 실명제가 없었던 1970년대 과세 편의성 때문에 도입한 증권거래세의 모순을 제거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주가 하락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견뎌내지 못했다. 상품별 과세를 인별 과세로 바꾸고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다.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금투세의 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 공제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논의의 결과로 나온 금투세를 심층적인 검토도 없이 한두 마디 말로 바꾸는 게 과연 옳은가?”

한투연 '성과'에 할 말 잃은 경제관료들

한투연이 성과로 자랑하는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이 발표될 때마다 경제부처 관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 “우리도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다.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라인이 아니라 정부라인의 결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관료의 입을 단게 만든 이런 정책을 조인한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정반대 입장의 한투연과 최운열 전 의원의 견해가 일치하는 대목 하나가 있다.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거다. 보완 후 시행이든, 시행 후 보완이든, 일단 예정대로 실시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용우 전 의원은 “향후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과거 5년의 손실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보완해 개인투자자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투세 유예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겪어온 혼선과 논란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

서경호 논설위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꾸기

탈락해야 하는 ‘ㄹ’

‘ㄹ’은 자음 가운데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진다. 혀끝을 뺨기듯 윗잇몸에 살짝 닿다가 떨어지는 소리다. ‘물, 불, 달’, 받침일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혀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야 한다. 자음이지만 모음 같은 성질도 있다.

그래서일까. ‘ㄹ’은 쉽게 자리를 비운다.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날 때는 무조건 탈락한다. ‘놀다/노는’ ‘졸다/조는’ ‘달다/단’ ‘떨다/떨’처럼 된다. ‘날다’도 자연스레 ‘ㄹ’이 탈락해 ‘나는’이 된다.

그렇지만 ‘날으는 새’ ‘하늘을 날으는 자동차’ 같은 잘못된 표현도 흔하다. ‘놀다’ ‘졸다’ 등에선 안 그러는데, ‘날다’에선 ‘-으’를 붙이려고 한다.

‘무지개, 무좀, 무자리, 무자백질’, 이 말들에서도 ‘ㄹ’이 탈락했다. 여기서 ‘무’는 모두 ‘물’이었다. ‘ㄹ’은 ‘ㅈ’ 앞에서도 조금 자취를 감춘다. 대부분 ‘올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노랫말에서는 ‘우지 마라’도 보인다.

‘떨지 않다’라는 말에서는 ‘ㄹ’이 탈락하면서 ‘머지않다’라는 낱말이 생겨났다. ‘떨지 않다’가 시간과 공간에 다 쓰인다면 ‘머지않다’는 시간과 관계된 맥락일 때만 온다.

‘ㄹ’로 끝나는 말은 명사형을 만들 때 ‘ㄹ’을 붙인다. 모음으로 끝나는 말과 같다. ‘놀다/놀’ ‘졸다/졸’ ‘달다/달’ ‘떨다/떨’이다. 이때 ‘ㄹ’은 적기는 하지만 발음하지 않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살며 배우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김홍영
전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대 교수

움이 된다.

- 코로나 검사 테스트기를 꼭 확보하라.
-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면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외부 접촉을 삼가라. 집안 환기도 자주 하라.
- 올해 특정 가운데 하나는 감염 후 2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장기 환자가 많다는 점이라고 한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 극심한 피로로 늘 하던 일이나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 근육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바이러스에 의해 많이 파괴되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일상적인 활동은 계속하되 피로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력의 원상회복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 숨이 차다. 장기 코로나 환자 144명의 폐를 검사한 결과 많은 숫자에서 폐 조직의 상처와 폐가 굳어지는 섬유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로 인해 힘든 일이나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는 것이다. 꾸준

히 심호흡하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한다.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깜박 잊어버리는 증상이 생긴다. 바이러스가 혈류와 호르몬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생긴 변화인데 꾸준한 인지 기능 훈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정도가 심하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장기 코로나 환자의 40%가 수면 패턴이 바뀌고 잠을 못 잔다는 보고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연구도 있다. 정도가 심하면 가정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설사, 변비, 배앓이 등 소화 장애가 발생한다. 전문 의사와 상담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점검해 소화 장애가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한다.
-광공, 유제품 등 특정 음식이나 꽃가루, 먼지 등에 전에 없던 알레르기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또는 전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관절염 등 몸의 통증도 심해진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치료법 연구도 꾸준히 진행된다.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르고,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이다.

잠망경

욕



서량
시인·정신과 의사

원에게 본국에 돌아가라 명한다.
병동직원들도 인간인지를 덩달아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싶어하는 눈치가 엿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인간적 차원에 국한된 욕이 더 호소력이 강하다. 가장 강력한 욕은 성적(性的)인 발언이다. 치부(恥部) 디파트먼트를 타깃으로 삼는 치사한 심보. 생식기를 떠나 사회기에 말단 부분에도 초점을 맞춘다. 미국인들에게 ‘shit’는 욕도 아니다. 직장 동료, “Ah, shit!” 하면 “아이구, 참!”하는 가벼운 좌절감의 표시로 나는 받아들인다. 물론 격렬하게 욕을 할 때도 이 말이 어김없이 쓰이기도 하지만.
욕쟁이 스티브는 남에게 모욕과 저주의 세례를 실컷 퍼부은 후 표정이 개운하다. 슬퍼서 심하게

울고 난 사람의 평온함이 엿보인다. 푸짐한 배설 작용 후에 찾아오는 푸근한 마인드셋. 오물을 듬뿍 뒤집어쓴 직원은 마음이 편치 않다.
2023년 6월 플로리다의 올랜도 메디컬 뉴스 기사를 읽는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주장한 욕의 혜택(benefit)에 대한 논문이다.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안 하는 사람보다 정직하다는 점. 당신이 험사리 동하지 않겠지만, 욕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한다는 점. 그리고, 딱딱한 이론에만 급급하는 좌뇌(左腦) 기능에 비하여 욕을 할 때는 창조력을 고무시키는 우뇌(右腦)가 자극을 받는다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어릴 적 한밤중 집에 도둑이 들어 은수저를 훔친 후 부엌 바닥에 똥을 푸집하게 누고 갔던 일이 있었다. 잠이 든 큰일 난다는 공포심에서 말 대신 똥으로 욕을 했던 것이다. 무서워서 욕을 하는 정신상태.
역병과 불운에 대항하려고 부모가 옛날에 아들을 개똥이라고 불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식을 개똥이라고 부를 때마다 부모들은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개똥이의 어린 시절이 애꿎이 욕을 본 것이다.

2024년 8월 1000명의 온라인 트위터 메시지를 대상으로 한 집계 따르면 미국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도시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로 나타났다. 볼티모어는 선원들이 많이 사는 항구다. 뱃사람들은 워낙 바다에 대한 공포심에서 욕을 잘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다.
네이버 사전은 욕(辱)이라는 한자어를 이렇게 풀이한다. ①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남을 저주하는 말. ②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 ③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 ④‘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 영어의 욕은 ①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③, ④는 별로 없다.
툭은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하여 뜻이 합성된 낱말, 즉 회의문자(會意文字). 辱자는 辰(별 진)자와 寸(마디 촌)자가 합쳐진 모양새. 갑골문자에 ‘농기구’를 손에 든 모습이 풀이한다. 辱은 농기구를 쓰면서 흙 묻은 손이 더러워진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④의 주제는 단연 ‘더러움’이다.
병동환자 중에서 욕을 제일 자주 하는 스티브는 모욕과 저주에 능숙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을뿐더러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는 직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출원권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For Sale
Open House 9/21/2024 (1-4pm)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 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스 대학, 트윈부룩 로,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풍, 페리오, 워크아웃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 | | | |
|--|---|---|--|
| <p>9월 크로아티아 발칸</p> <p>6박7일 9/25~10/1 \$2,890 +항공</p> | <p>1월 신비의 인도</p> <p>12박13일 1/28~2/9/25 \$3,390 +항공</p> | <p>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p> <p>9박10일 3/27~4/5/25 \$3,990 +항공</p> | <p>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p> <p>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p> |
| <p>10월 스페인 & 포르투갈</p> <p>10박11일 10/8~10/18 \$3,190 +항공</p> | <p>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p> <p>9박10일 2/17~2/26/25 \$3,590 +항공</p> | <p>4월 남프랑스</p> <p>6박7일 4/14~4/20/25 \$2,990 +항공 (봄방학 특선)</p> | <p>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p> <p>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p> |
| <p>10월 정통 서유럽</p> <p>10박11일 10/9~10/19 \$3,490 +항공</p> | <p>2월 아프리카 & 두바이</p> <p>13박14일 2/20~3/5/25 \$11,500 +항공</p> | <p>4월 정통 동유럽</p> <p>8박9일 4/30~5/8/25 \$3,390 +항공</p> | <p>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p> <p>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p> |
| <p>12월 이태리 일주</p> <p>6박7일 12/23~12/29 \$2,390 +항공 (크리스마스 특선)</p> | <p>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p> <p>12박13일 3/17~3/29/25 \$5,490 +항공</p> | <p>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p> <p>13박14일 4/30~5/13/25 \$4,590 +항공</p> | <p>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8박9일 \$1990+항공</p> <p>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11일 \$2990+항공</p> |
| <p>2025 1월 파타고니아</p> <p>10박11일 1/14~1/24/25 \$6,790 +항공</p> | <p>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p> <p>7박8일 3/17~3/24/25 \$3,190 +항공</p> | <p>5월 그리스 & 튀르키예</p> <p>10박11일 5/6~5/16/25 \$2,890 +항공 (*산토리니 옵션)</p> | <p>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p> <p>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p> |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 **\$2990** +항공

4차 10/15~10/25 **마관**

5차 10/22~11/1 **마관**

6차 10/29~11/8

동남아 여행

3박4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4일 푸켓 \$599+항공

3박4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4일 싱가포르 \$790+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4일 오카 \$999+항공

3박4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10/1, 11/14, 12/12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개년까지 일주 여행 **\$1500** +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4일 천심/몽트랑블랑 몬트리올/퀘벡 **\$950**

10/7, 10/14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원임**

2박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뉴욕 나이아가라 동부 명도 해관 숙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3일 **\$650**

서부 4대 개년 5박6일 **\$990** +항공 **일출**

5대 개년+세도나 6박7일 **\$1300** +항공 **일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 +항공 **일출**

알래스카 6박7일 **\$1550** +항공 **일출**

엘로스톤 3박4일 **\$930** +항공 **일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 +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September 24, 2024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미국 발전 선도하는 공립대학의 롤모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리즈 ① UC버클리, UC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최고의 주립대학인 UC버클리는 미국은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공립대학으로 첫번째 캘리포니아 대학이다. 인근에 있는 UC데이비스도 시작은 버클리의 농업 캠퍼스였지만 이제는 독립 캠퍼스로 북가주를 상징하는 명문대학이 됐다. 두 대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매년 박사 900명 배출로 선두 기록
16개의 원자 발견, 인터넷 등 개발
데이비스 수의대는 최대 최고 명성

고 대학원생은 1만2000여명이라는 점이다. 사립 대학들은 이런 구조가 반대다. 매년 학사는 5500명, 석사는 2000명, 박사는 900명을 배출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UC버클리는
UC버클리나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불리는 것이 더 친숙한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립이 아닌 공립 대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학교로 1868년 3월 개교했다. 실제 UC계 10개의 캠퍼스중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나머지 캠퍼스중 상당수의 시작은 버클리의 위성 캠퍼스였다. 버클리는 UC계 대학의 어머니 같은 존재이며 모든 공립대학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그래서 명성은 드높아 각종 대학 순위에서 주립대학을 대표한다. 또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대학이며 베스트 글로벌 대학 순위, 세계대학 아카데미 랭킹 (ARWU) 등에서 첫번째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립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수 및 연구원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헤아릴 수 없고 졸업생만 37명에 달한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맥아더 펠로십, 아카데미상, 풀리처상 수상자가 많다.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21명을 배출했다.

아울러 US뉴스 대학순위는 UCLA와 함께 공동 15위(2024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과학부 1위, 공학부 3위, 사회과학 5위, 화학 1위, 물리학 1위, 컴퓨터 사이언스 3위, 수학 4위, 경제경영학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창업가를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현재 15개 단과대학에 4만5000명이 재학 중이다. 여타 다른 유명 사립대학과 다른 점은 학부생이 3만2000여명이

또한 플루토늄, 버클륨, 로렌슘, 캘리포늄 등 원자 주기율표 92번째부터 106번째인 시보(Seaborgium)까지 16개의 원자를 발견했으며 인터넷, 컴퓨터 운영체제의 시조세제인 BSD, 오픈소스, 월드와이드웹(WWW)의 초기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이클로트론 입자가속기를 어니스트 로렌스 교수가 발명하였고 플루토늄 역시 글렌 시보그 교수가 발견했다. 또한 2차세계대전 당시 로스앨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이 되어 원자폭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한 로버트 오펜하머(원자폭탄의 아버지)도 버클리 교수였고 수소폭탄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텔러도 버클리 교수였다.

모토는 Fiat Lux(빛이 있으라)이고 닉네임은 금빛 곰(Golden Bears)이고 마스코트는 오스키 더 베어(Oski the Bear)다.



UC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몬다비와인랜드프드과학연구소의 전경. [플릭커 Prayitno Hadinata]

UC 버클리에는 지난해 15번째 단과대학으로 컴퓨팅,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College of Computer Science, Data Science, and Society)이 생겼으며 130개 이상의 학과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 총109개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UC 버클리에는 지난해 15번째 단과대학으로 컴퓨팅,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College of Computer Science, Data Science, and Society)이 생겼으며 130개 이상의 학과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 총109개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하스경영대학 (Haas School of Business)에서 1개, 화학대학(College of Chemistry)에서 5개, 공대(College of Engineering)에서 20개, 환경디자인대학 (College of Environmental Design)에서 4개, 문리대(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에서 67개, 라서 자원대학 (Rausser College of Natural Resources)에서 10개, 컴퓨팅 데이터 사이언스대학에서 3개, 독립 전공 2개로 이뤄져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어 버클리의 학부 교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학부 학과는 전기공학 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정치학, 분자세포생물학, 환경과학, 경제학 등 6개다.
한편 대학원은 교육대학원, 저널리즘대학원, 법학대학원, 정보대학원, 겸안대학원, 보건대학원, 리처드 & 로다 골드먼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이 있다.

#버클리 학부생 프로파일
버클리의 학부생은 아시아인 35%, 백인 22%, 히스패닉 19%, 외국유학생 13%, 흑인 2%, 기타 9%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22%이고 중상류는 78%다. 2022년 입시 결과로 합격률은 11.4%이고 GPA(unweighted)는 3.9였다.
장병희 기자

▶ 4면 'UC버클리'로 이어집니다

#버클리의 단과대학과 인기학과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히틀러는 폴란드부터 아시아의 시작으로 보았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우랄산맥'이라고 답할 것이다. 세계지리, 세계사 수업 등에서 우리는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북극해까지 남북으로 러시아를 종단하는 우랄산맥 서쪽은 서양이고 그 반대편이 동양이라고 배웠다. 실제로 우랄산맥 주변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기리는 기념비가 꽤 있다. 1846년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황태자 시절 방문한 기념으로 세운 예카테린부르크의 기념비가 대표적이다.

우랄산맥은 꿈쩍 않고 그대로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자주 바뀌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코카서스 산맥에서 흘러나와 그루지아를 관통하는 '리오니강'이 경계였고, 로마 시대에는 '돈강'으로 바뀌었다. '볼가강'과 우랄산맥 사이의 늪지대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된 것은 18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1880년의 프랑수아 유럽 지도는 우랄산맥 서편의 돈강, 볼가강 지역의 러시아를 전부 유럽에 포함하는 대신, 산맥 동쪽은 '아시아'라고 큰 글씨로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계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 일리야 레핀의 그림 '최후통첩을 보낸 튀르키예 술탄에게 조종의 답장을 쓰는 자포로제 카자크'(1880-91). 동슬라브계인 카자크(코사크) 족의 용맹하고 비유럽적인 모습이 강조된 이 그림은 때로는 '동양'으로, 때로는 '서양'으로 여겨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사진 러시아국립미술관]

로마 시대는 돈강이 유럽-아시아 경계 우랄산맥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 대한 식민주의적 팽창이었다. 오리엔탈리즘에 따르면, 유럽이 아시아를 식민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아시아가 유럽을 식민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차르 시대의 '문명화 사명'이나 공산주의 소련 시절의 '북지 식민주의'라는 구호 아래 수행된 식민주의 프로젝트가 우랄산맥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만든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우랄 동쪽에 사는 시베리아의 유목민족들은 때때로 '인간 동물원'의 전시물로 유럽 러시아인들의 식민주의적 호기심을 만족시켰다. 서구적 식민주의의 러시아적 변용이었다. 러시아 식민주의에서 우랄 동쪽의 유목민족은 아시아-아프리카인을 대신했다. 21세기에도 유럽 러시아는 '민속'의 이름으로 자국의 시베리아 소수 민족을 전시했다.

우랄산맥 양쪽에 걸쳐 있는 러시아는 서양인가 동양인가? 답은 간단치 않다. 아직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러시아인들의 논평은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2022년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정상회담을 갖자,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집합적 서양'이 러시아와 두번째 충돌을

우랄산맥 경계선 주도한 러시아 서양이면서도 서양 아니라 생각

나치, 동유럽·소련에서 살육·약탈 동쪽 야만에 대한 방어로 정당화

서양 받아들여 청·러 물리친 일본 동양자와 다른 '국사'로 역사 구분

불사하고 있다 논평했다. 나토 중심의 '서양'과 러시아를 대척점에 놓음으로써, 러시아는 서양이 아니라고 시사한 것이다. 미디어에서 드러난 보통 러시아인들의 생각은 더 흥미롭다.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한 토론자는 서양이 이기면 러시아인들을 '인간 동물원'의 전시대상으로 삼을 것이므로 전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격양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양 식민주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안감을 접하다 보면, 러시아는 서양이면서도 서양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기 어렵다.

서양이면서 서양이 아닌 러시아의 역사적 딜레마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

가들도 안고 있다. 18세기 말 '서양'에서 온 여행자들은 프로이센에서 폴란드로 3마일만 들어가면 아시아적 풍습과 유럽적 풍습이 갈라지는 경계를 확연히 느낀다고 썼다. '비굴함·더러움·허영심·거짓말·의심·질투·비겁함' 등의 묘사를 보면 마치 19세기 말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결하며 문화의 불모지인 조선에 대한 비습 여사의 여행기를 연상케 한다.

18세기 말 이래 서유럽의 식자들에게 동유럽은 유럽과 아시아의 지리적 경계이자 문명과 야만의 철학적 경계였으며 절반은 아시아인 유럽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겨냥했다면, 독일의 오리엔탈리즘은 슬라브족의 동유럽을 타자화했다. 독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동유럽은 '원시적인 아시아적 슬라브인들'로 오염된 변경이었다. 1850년대 독일의 한 괴짜 공작은 아프리카에서 얼룩말, 타조, 영양 등을 가져와 우크라이나 스텝 지대에 풀기도 했다. 그에게 '하얀 검둥이'들이 사는 우크라이나는 그저 추운 아프리카였을 뿐이다.

동유럽에 대한 독일의 오리엔탈리즘은 나치의 집권 이후 더 공고해졌다. 히틀러에게 유럽과 아시아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경계에서 갈라졌으며, 폴란드부터 아시아는 시작이

었다. 우랄산맥은 더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아니었다. 나치는 '동방부(Ostministerium)'를 만들어 동유럽 정책을 주관했는데, 영국의 '인도부'가 모델이었다. 러시아는 히틀러의 인도였다.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나치의 목시록적인 살육과 약탈은 슬라브족의 아시아적 야만으로부터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지키기 위한 십자군의 수사로 정당화했다. 때로는 미국식 서부 개척의 메타포가 사용되기도 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폴란드인은 독일인을 마주치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 아시아적 야만의 폴란드인들은 극장·연극·박물관·전시회 등의 방문이 금지됐고, 타자기·전축·라디오·카메라·자전거 등의 소유는 불법이었다. 나치가 동유럽 점령지에 급조한 유대인 게토는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과 같은 발상이었다.

나치의 학제에서 폴란드 연구는 '동방 연구(Ostforschung)'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동유럽에 대한 독일판 오리엔탈리즘의 정수였다. 프랑스에 주둔한 독일 군인들이 가졌던 열등감 콤플렉스와는 대조적으로 동유럽을 점령한 나치 군인들은 문화적 우월감을 넘어 식민주의적 사명감을 가졌다. 폴란드 점령군인 독일 병사들은 /



서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을 '전시'한 '인간 동물원'의 예.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전시'된 필리핀의 이고로트족의 사진. [사진 미국 미주리 역사박물관]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 | | |
|--|---|---|
| 급매 \$69만 우드브리지 나쁜 평판 상할음 방4+ 차3 차고2 |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
| | |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 VA 571.999.2755 | MD 301.775.2774

중1때 성적 같아도 부모 잘살면 상위권대 3배 더 갔다

(SKY 등 8개 대학과 의학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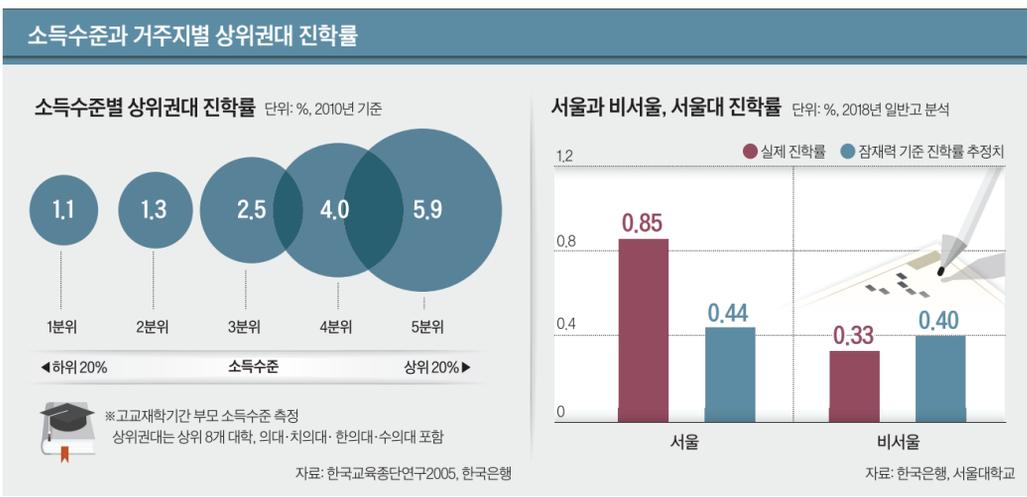
한은 입시과열 대응방안 보고서 '잠재력 같은 중1' 6년간 추적조사 소득상위 20%, 상위권대 5.9% 진학 하위 80%선 2.2%... "경제력 작용" "지역별 학령인구비율 따져 선발을"

부모 경제력, 서울 및 학군지 거주 여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쏠림 현상,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등을 심화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 학생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좋은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 정종우 과장 등 연구진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지만 부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단연구2005' 원자료를 이용해 2005년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들의 '잠재력'과 '대학진학률'을 분석했다. 여기서 잠재력은 중1 수학적취도 점수로 측정했다. 잠재력이 비슷하다면 상위권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과 의대·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도 비슷해야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소득 상위 20% 그룹에서 상위권대 진학률이 5.9%로 나타나지만, 소득 하위 80% 그룹에서는 진학률이 2.2%에 그쳤다. 연구진은 "양 소득 그룹 학생들의 잠재력이 같다고 가정하고 보면, 경제력이 상위권대 입시에 약 75% 작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부모 경제력뿐 아니라 서울 거주 여부도 입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다. 2018년 기준 서울과 비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해 보니, 잠재력보다는 사는 곳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접근성(학원가 인프라), 면학 분위기로 인한 동료 효과 등이 작용한 결과다.

2018년 입시를 분석해 보니, 이 시기 학생 잠재력을 고려하면 서울에선 고3 학생 중 0.44%가, 비서울 지역에선



0.4%가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분석에서는 학생 잠재력을 부모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했는데, 학계에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지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잠재력은 비슷했는데, 실제 결과는 달랐다. 서울 지역에선 0.85%가, 비서울 지역에선 0.33%만이 진학했다. 연구진은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8%만이 학생 잠재력의 영

향이고, 나머지 92%는 거주지역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사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범주를 좁히면 차이는 더 벌어졌다.

학생 잠재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지역이나 서울 내 다른 구와 비교해 서울대 진학률이 8~9배 높았다.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이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계층 이동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지

위 대물림 현상도 심화한다.

연구진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상위권 대학 입시 정원에 반영하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한 지역에 전국 고교생 중 일정 비율이 공부하고 있다면, 대학 정원에 그 비율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 학생을 뽑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학별로 시행 중인 지역 균형선발 제도하에서보다 더 많은 지방 학생이 상위권 대학 교육 기회를 받게 된다.



연구원 우선 '한국교육중

개미 보고 스스로 응원하기

분주히 움직이며 꾸준히 일하는 개미를 보면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일하다 질리기도 하고 의욕 부진에 빠지거나, 의욕이 있어도 괜히 딴짓을 할 때도 있다. 실리로만 따지면 개미처럼 사는 것이 유리한데 왜 그렇게 못 하는 걸까? 개미와 인간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 개미들은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일

개미가 부단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임무가 정해져 있고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잘 프로그램된 로봇 같다. 반면 인간은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판단하도록 두뇌가 발달했다. 그 부작용으로 의욕 부진이나 주의산만 상태에 빠져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속 여러 갈래 생각 중 동기와 의욕은 주로 감정의 문제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감정 혹은 느낌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의욕과 지겨움의 상호작용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리란 것은 심리학을 공부 안 했어도 짐작할 수 있다.

개미의 행동 판단이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조정되는 반면, 인간의 경우 복잡 다양한 입력을 행동 출력으로 연결하는 데 감정이 매개한다. 뇌는 진화하면서 이성과 논리를 다루기 위한 방책으로 비논리적인 감정을 도입했다. 뇌 안에서 감정의 주요 제어 장치인 편도체(amygdala)는 기억과 학습, 그리고 의사 결정에 깊이 관여한다. 감정을 제어하는 편도체의 기능 이상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과도 관련이 깊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판단의 상호관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이 전반적으로 생존에는 최적의 선택이었으리라. 다행히 우리는 감정 외에 이성도 가졌다. 운동으로 몸을 발달시키듯, '마음의 중도'를 위해 노력하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 감정은 마음의 강력한 능력이다. 이를 분석하면 마음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텍사스A&M대 생명공학부 교수

'동양인들의 신비로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썼고, 아시아적 병사들로 구성된 붉은 군대는 볼셰비키라는 아시아적 이념을 기독교적 서구에 강요하려는 야만의 군대였다. 폴란드에서는 독일 연구를 '서방 연구(studia zachodnie)'라고 불렀다. 포즈난에 있는 오랜 전통의 독일연구소는 아직도 공식 명칭이 '서방 연구소(Institut Zachodni)'이다. 프랑스의 발전된 물질 '문명'에 대해 고유한 정신 '문화'를 강조하는 등 19세기 이래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독일인들이 가

졌던 열등감 콤플렉스는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폴란드를 동양으로 만드는 대신, 독일은 서양이 됐다. 서양과 동양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동유럽의 동양적 이미지는 냉전 시대에 더 강화됐다. 나토를 중심으로 뭉친 미국과 서유럽 반공 블록은 북유럽의 발틱 3국, 남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부 유럽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공산권 블록을 '동유럽'으로 통칭함으로써, 스탈린 치하 공산주

의 체제의 아시아적 야만성을 강조했다. 동유럽은 동쪽 유럽이 아니었다. 1980년 연대노조 운동이 한창일 때, 국민적 지도자로 등장한 바웬사는 "폴란드를 제2의 일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호는 1991년 전후 최초의 민주적 대통령 선거 때 다시 등장했다. 후진적인 폴란드를 선진적인 일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바웬사의 연설에서는 과연 어디가 동양이고 어디가 서양인가? 야만적 동양대 문명화된 서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에 바웬사의 이 말을 대입하면, 우랄 동쪽

의 일본이 서양이고 서쪽의 폴란드가 동양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르코 폴로, 중국·일본인 백인으로 봐 중국에서 '동양'은 전통적으로 자바섬 인근 해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마르코 폴로 등의 유럽 여행자들이 중국인과 일본인을 아직 '백인'이라고 부를 때의 일이다. 그 동양이 오리엔탈리즘에서 말하는 '후진적이고 열등하며 미신적이며 감정적이고 여성적인' 동양으로 바뀌게 된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계기였다.

청나라와 러시아에 잇달아 승리하자, 일본은 이들의 서양이 됐다. 중국은 '동양사'로 배치하여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으로 삼고, 서양과 거의 동격인 일본은 동양사에서 떨어트려 국사로 분리되, 본받아야 할 선진적인 서양은 서양사로 편제하는 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3분과 체제가 제국 일본의 학제로 자리 잡았다. 동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후발 제국 일본의 욕망이 학제로서의 '동양사'를 낳은 역설은 세계사의 부조리를 잘 보여준다.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 |
|--|--|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카중보험 적용 됩니다 |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대입 들여다보기

‘커먼 데이터셋’ 합격생 학업통계 보면 현실적 대학 선택의 객관적 기준 가능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찮은 작업이다. 그런데 실상가상으로 자녀가 현실적으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을 리서치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자녀와 솔직하고 분명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자녀가 대학 생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흥미가 있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경청한다. 자녀가 비현실적인 꿈을 꾸거나 다소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기를 죽이지 않도록 노력하라.

만약 9학년생 자녀가 하버드대 같은 탑 대학에 진학하길 원한다면 차라리 낫다.

아직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히 있고, 엘리트 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때문이다. 그러나 12학년 자녀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시간이 촉박해서 짜증이 날 수 있다. 자녀의 대학 선택이 맞는지 보러

면 먼저 상향 지원인지, 하향 지원인지 파악해야 한다.

고등학교 성적이나 과외 활동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수퍼리치 스쿨인가? 아니면 너무 겁을 먹고 지나치게 세이프티 스쿨만 지원하길 원하는가?

자녀가 학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학에 진학한다면 진학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의 학업 능력에 비해 대학의 학업 강도가 너무 강해도 문제이고, 너무 약해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성적과 표준시험 점수 등을 토대로 어떤 대학이 학업적으로 가장 잘 맞을지 판단하라. 각 대학이 공개한 ‘커먼 데이터셋’(Common Data Set)을 검색해서 지난해 합격생의 학업적 통계를 살펴본다.

이 자료를 통해 전체 합격생의 SAT, ACT 평균 점수를 포함해서 합격생 중 몇 퍼센트가 고등학교 클래스 랭크 10% 안에 들었던 학생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필요한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의 필요한 것, 자녀가 원하는 것

과 구분하도록 노력하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되, 현실성은 갖춰야 한다.

둘째, 재정적으로 특정 대학에 보낼 만한 형편이 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대학 지원 과정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정도 낱을 잡아 자녀와 앉아서 대학에 다니려면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확실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부모는 얼마의 비용을 4년간 지원해줄 수 있는가? 스칼라십이나 용자 등 외부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부모나 자녀가 학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는가? 만약 얼마간의 경비를 용자를 통해 조달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자녀가 일해서 용돈이나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의향이 있는가? 부모가 학비를 지원해주기 어려운 대학에 자녀가 지원하려고 하는가?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

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로 NPC(Net Price Calculator)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특히 조

기전형 중 하나인 얼리 디시전(ED)으로 대학에 지원할 경우 합격하면 진학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ED로 지원할지 말지에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NPC를 돌려본 후 특정 대학에 보내는데 드는 경비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ED로는 그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게 낫다.

마지막은 ‘핏’(fit)이다. 어쩌면 가장 모호한 부분이다.

부모에게는 드림스쿨로 보이지만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녀는 자기와 핏이 딱 맞는 대학이라고 골랐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핏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면적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당사자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왜 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녀의 핏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명성만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핏이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빈센트 김·어드미션 매스터즈 카운슬러

커리어 준비하기

성공에는 익숙함 벗어나는 용기 필요...무모함 아닌 대담함 과소평가 말아야

청년들이 진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기술에 대해 계속되는 이 연재 시리즈에서 우리는 청년들의 자신감,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글은 중요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기술인 대담함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대담한 행동의 힘

역사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행운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진부한 표현이 아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독특한 진로를 선택하든, 용감하게 앞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은 종종 혁신과 성공에 앞장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올바른 균형 잡기

그러나, 대담하다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은 아니다. 장단점을 신중히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성공적인 위험 감수자는 상황을 살펴보고 득과 실을 이해한 다음, 가능한 이익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한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위험과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

워한 나머지, 위험이 실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좋은 가능성과 나쁜 가능성을 모두 현실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 생각해보면, 많은 위험이 보이는 것만큼 무섭지 않으며 잠재적인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실패보다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결정에 대담한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청년들은 “만약에”를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담한 태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자부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나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모든 성공 스토리는 실패를 담고 있으며 중요한 교훈을 준다. 실패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면 위험 감수를 성공을 향한 필수 단계로 보는 데 도움이 된다.

▶대담한 위험 감수자들의 사례를 통해 배우기

위험 감수에 있어 대담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는 대담함이 어떻게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획기적인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J.K. 롤링은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수많은 거절을 겪었다. ‘해피 포터’ 시리즈에 대한 그녀의 대담한 끈기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이끌었다.

▶청년들에게 대담한 의사 결정의 기술 가르치기

청년들이 대담함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대담함과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의 균형을 잡도록 한다.

◇장단점을 따져보도록 하여 잠재 위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과감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가르친다.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대담한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모두 공유하여 모든 경험에서 얻는 배움의 가치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대담함을 기르는 것은 개인적, 직업적 발전에 중요하다. 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성취감을 주며 성장 지향적인 삶을 보장한다.

제임스 박 대표·LA 커리어 코칭

▶1면 'UC버클리'에서 이어집니다

#UC데이비스는

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또는 UC Davis, UCD)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새크라멘토로 가는 도중에 있는 데이비스에 위치한 UC 캠퍼스다. 1905년 UC의 대학 농장(University Farm)으로 문을 열었다. 1922년에는 농대 북부분교(Northern Branch of the College of Agriculture)로 이름이 바뀌었고, 1959년 UC의 7번째 공식 캠퍼스가 됐다. UC 캠퍼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데이비스는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캠퍼스로 시작은 농대였지만 의대, 법대, 수의대, 교육대, 간호대 경영대까지 확장했다. 특히 수의대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단과대학으로 농업환경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문리대와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법학대학원, 의과대학원, 간호대학원, 수의과대학원의 6개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다. 학부에 전공은 100개가 넘고 농대는 미국 1위, 수의대 또한 세계 최고의 대학원으로 인정 받고 있다. 지구과학, 미술, 심리학, 통계학 등이 톱20 안에

꼽힌다. US뉴스 대학순위는 UC샌디에이고, 플로리다 주립과 동률로 공동 28위(2024년)다. UC에서는 이미 공동 3위가 됐다.

연방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졸업률이 높고 취업 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미국 내 15개의 4년제 공립대학 중 한 곳이다. 매년 50%의 학부생이 졸업시까지 한 번 이상 자신의 분야에서 인턴십과 리서치 경험을 갖는다. 이는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캠퍼스가 위치한 데이비스는 주도인 새크라멘토와 가까워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의회 의사당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데이비스 학부생 프로필

데이비스 학부생은 아시안 28%, 히스패닉 24%, 백인 22%, 외국유학생 16%, 흑인 2%, 기타 7%로 구성돼 있다. 저소득층은 32%이고 중산층 이상은 68%였다. 2022년 입시 결과로 합격률은 37.5%이고 GPA는 4.06-4.30이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풀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9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툰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매스틱

래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항병 공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플러스

3+1 스페셜 \$45 \$125

세종 승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배, 관절 건강에 최고!!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클루타치온 콜라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한 안전한 죽염 치약

록밴드 꿈꾸는 여행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지난 22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콘서트 ‘포크 포에버’. 그룹 여행스케치가 히트곡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나’를 부르자, 객석에서 떼창이 터졌다. 오래 사랑 받은 포크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인데, 올해는 여행스케치와 동물원, 박학기가 공연했다. 여행스케치는 이날 데뷔곡 ‘별이 진다네’부터 ‘옛 친구에게’ ‘시종일관’ ‘왓치 느낌이 좋아’ 등을 들려줬다.

여행스케치는 1989년 제2회 백마가요제 본선 진출자들이 모여 결성한 포크그룹이다. 혼성 11인조였다가 지금은 루카(조병석·58)와 남준봉(55)만 남았다. 두 사람은 수원대 음악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지금껏 함께했다. 데뷔 이래 꾸준히 청춘의 풋풋함이 담긴 서정적 가사의 포크송을 들려줬다. 노래 대부분을 작사·작곡한 루카는 공연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35년의 모습을 백조에 빗대 “청춘의 낭만

을 대표하는 듯했지만, 물밑에선 열심히 발버둥 치며 일했다”고 말했다.

-히트곡이 많은데도 힘들었다.
“메이저 유티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유명한 분들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줘 여행스케치라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랑받는 노래를 쓴 비결은.
“청춘의 감성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감사하다. 엉뚱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편인데, 많은 분이

데뷔 35주년 맞은 ‘포크의 전설’
“그간 259곡, 10집은 버킷리스트 음악인생 후반은 김민기 형님처럼 좋아하는 모던록 밴드 꾸릴 예정”

그런 면을 특별하게 봐주신 것 같다.”
2009년 루카는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상실증까지 겪었다. 그는 “30대 때 잘난 맛에 빠져 살았는데, (사고가) 정신을 들게 했다”며 “지금도 그때 사고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힘든 시절을 왜 간직하나.
“언더그라운드에서 조금 유명해졌다고 자만하며 살았구나” 반성했다. 적극적으로 회복한 후 반성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을 간직하기로 했다.”

-그때는 남준봉이 활동을 책임졌다고.
“준봉의 가창력이 출중하다. 멋스럽게 노래하며 여행스케치 브랜드를 지켜줘 고맙다.”

-여행스케치의 매력은 뭘까.
“포크의 여러 갈래 중 젊은 이들의 정서를 담은 ‘낭만’을 담당했다. 스케치에 머무르지 않고, 색감을 입히려 했는데 감사하게도 작품성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여행스케치의 최신 곡은 2022년 낸 싱글 ‘키다리 아저씨’. 202

년 발매한 9집 ‘달팽이와 해바라기’가 마지막 정규앨범이다.

-정규 10집은 언제 나올까.
“10집 앨범은 내 버킷리스트다.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내 노래가 259곡이다. 35년 활동했으니 1년에 10곡도 안 낸 게으른 사람이다. 팬들께 죄송하다. 김민기 선배가 별세한 뒤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에 관해 느낀 바가 많아 신중하게 작업할 것 같다.”

-어떤 노래를 남기고 싶나.
“음악 인생 후반전은 내가 원하는 채색을 할 생각이다. 좋아하는 모던록 바탕의 밴드를 꾸릴 예정이다. 여행스케치로는 한 세대를 다 돌았다고 생각한다.”

-여행스케치는 어떻게 되나.
“10집을 끝으로 나는 고문 정도로 뒤에 머물 생각이야. 다른 스케치를 입혀 줄 멋진 후배가 나타나길 바란다. 여행스케치라는 브랜드는 알아도 멤버 얼굴은 잘 몰라서 새 얼굴이 노래해도 놀라지 않을 거다(웃음). 40주년엔 여행스케치를 스쳐 간 모든 멤버와 돌아가며 콘서트 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황지영 기자



데뷔 35주년이 된 그룹 여행스케치의 원년 멤버 루카·남준봉(왼쪽부터). 혼성 11인조로 시작해 둘만 남았다. [사진 여행스케치]

손흥민 ‘멀티 도움’ ... 비난이 쏙 들어갔다

4경기 침묵 깨고 브렌트퍼드 완파 유럽 무대 통산 ‘100호 도움’ 달성

‘캡틴’ 손흥민(32)이 2개의 어시스트로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를 연패에서 구해내며 자신을 둘러싼 비난도 함께 잠재웠다.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렌트퍼드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2연패 중이던 토트넘(승점 7)은 리그 10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1로 맞선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역전 골을 도왔다. 손흥민의 시즌 첫 도움이자 공식전 4경기(리그 3경기·리그컵 1경기) 만에 다시 맛 본 공격 포인트였다.

손흥민은 2-1로 앞선 후반 40분에

제임스 매디슨의 패시브 골도 어시스트하며 멀티 도움을 작성했다. 이로써 유럽 무대 통산 100호 도움(토트넘 86·레버쿠젠 11·함부르크 3·도움)을 달성했다. EPL 64호 도움 고지를 밟은 그는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도움 기록(68개)에 4개 차로 다가섰다. EPL 전체에선 역대 공동 18위다.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홈 팬들과 영국 언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지난 15일 아스널과의 복원된 дер비(4라운드)에서 토트넘이 0-1로 패하자 비난의 화살이 에이스 손흥민에게 모아졌다. 일부 토트넘 팬은 “리더십이 부족한 손흥민은 주장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도 손흥민의 부진을 집중 조명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전 맹활약으로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았다. 팬 투표를 거쳐 경기 최우수 선수(MOM)로 뽑혔고 각종 매체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

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과 매디슨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7점을 줬다. 풋폼도 팀 내 최고점인 9.0점을 매겼다. 스카이스포츠는 “완벽하고도 헌신적인 플레이”라며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이날 토트넘은 경기 시작 23초 만에 선제 골을 내줬지만, 전반 8분도미닉 솔란케가 동점 골 겸 시즌 첫 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리그 19골(공동 4위)을 넣은 그는 올 시즌 6500만 파운드(약 1160억원·추정치)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활약 중인 ‘괴물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도 존재감을 뽐냈다. 21일 독일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무실점 수비로 뮌헨의 5-0 승리에 힘을 보탰다. 김민재와 다요우 파메카노가 이끈 뮌헨의 수비진을 상대로 상대로 브레멘은 단 하나의

슈팅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김민재 특유의 전진 수비가 살아나면서 역습이 번번하게 무산된 브레멘의 공 점유율은 30%까지 떨어졌다. 경기 막판에는 뚝리엔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을 상황에서 깔끔하게 공만 빼앗는 김민재의 플레이에선 특유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뮌헨이 센터백 출신 뱁상 콩파니(벨기에)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한 이후 주전 센터백으로 낙점된 김민재는 올 시즌 6차례 공식전에 모두 출전하며 압지를 굳혔다.

뿐만 아니라 축구대표팀 해외파 미드필더들도 소속팀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에 입단한 황인범은 지난 19일 데뷔전으로 치른 레버쿠젠(독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0-4 패)에서 여러 축구 통계 매체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베테랑 미드필더 이재성(마인츠)도 지난 15일 베르더 브레멘과 홈 경기(1-2 패)에서 마수걸이 골을 신고했다.

피주영 기자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1-1 균형을 맞추는 동점 골을 넣은 도미닉 솔란케(오른쪽)를 축하하는 손흥민. 토트넘은 역전 골과 패기 골을 모두 도움 손흥민의 활약으로 3-1로 이겼다.

[AP=연합뉴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카툰플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바가지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 | |
|-------|-------|
| 1 BOX | \$100 |
| 2 BOX | \$200 |
| 3 BOX | \$300 |
| 4 BOX | \$400 |
| 5 BOX | \$500 |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무경력자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전반)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해주시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말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감합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엘리컷시티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안 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 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업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9,500/렌트:\$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서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중앙일보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턴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
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오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
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
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
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
영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들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크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
트,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사사 (VA)
▶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함
니다. 월-금, 오후 3PM-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나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아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 싱글홈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
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급매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아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옆방1/여자분원함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씽글하우스 아래층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별도 출입문,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 만 원합니다.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스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룰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원함
703-344-6273

▶▶조지메이스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 렌트 조지메이스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원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 1/2, 1.61 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와 손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은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부동산/사업용 매매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 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 Beer & Wine Convenient 연매상: \$420,000, 7Days. 포텐셜 큼

렌트: \$3500, 가계: 1F=1000 +B=1000/sf 안전지역. Selling Price: \$150,000. +Stock 문의: 571-242-3736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사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렉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사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사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복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하트앵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B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 | | | |
|--------------|--------------|------------------|--------------------|
| KOREA(SEOUL) | KOREA(BUSAN) | USA(LOS ANGELES) | USA(SAN FRANCISCO) |
| 02-2083-2083 | 051-469-4191 | 310-767-5699 | 510-887-2424 |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sha: Timmy! What happened to you?
 마샤: 티미! 무슨 일 있었어?
 Timmy: A car almost hit me. I swerved and hit a parked car and fell in the street and cut my knee...
 티미: 차에 치일 뻔 했어. 비틀거리다 주차된 차에 부딪치고 길에 쓰러져서 무릎이 찢어졌는데...
 Marsha: Are you alright? I'll take you to the doctor.
 마샤: 괜찮아? 병원에 가자.
 Timmy: I'm okay. A lady stopped to patch me up.
 티미: 괜찮아요.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응급처치를 해

주셨어.
 Marsha: What's her name?
 마샤: 그분 성함이 뭐였니?
 Timmy: I don't know. It slipped my mind.
 티미: 몰라. 잊어버렸어요.
 Marsha: Well, it was very nice of her to help you.
 마샤: 어쨌든 널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Timmy: Then she offered to drive me home.
 티미: 그리고 집까지 태워다 줬어.
 Marsha: That woman has a heart of gold.

have eyes in the back of (one's) head: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리다

마샤: 그 여자분 참 좋은 분이구나.
 Timmy: She said it wasn't my fault because I don't have eyes in the back of my head.
 티미: 그분이 내 머리 뒤에 눈이 달리게 아니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전선으로 배치됐습니다.)
 ▶ it slips (one's) mind: 잊어버리다.
 "I will call you tonight unless it slips my mind."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오늘밤 전화할게요.)
 ▶ (one) has a heart of gold: (누구는) 사람이 참 좋다.
 "He looks like a tough guy but he has a heart of gold." (그는 거칠어 보이지만 사람이 참 좋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patch (someone) up: (누구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Soldiers with minor injuries were patched up and sent back into battle."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날말퀴즈

| | | | | | | | | |
|----|----|----|----|----|----|----|----|----|
| 1 | | 2 | | | 3 | 4 | | 5 |
| | | | | 6 | | | | |
| 7 | 8 | | 9 | | 10 | | 11 | |
| | 12 | 13 | | | 14 | 15 | | |
| | | | | | | | | |
| 16 | 17 | | 18 | | 19 | | 20 | |
| 21 | | | 22 | 23 | | | 24 | 25 |
| | | 26 | | | | 27 | | |
| 28 | | | | | 29 | | | |

가로열쇠

(1)산과 내를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가뭄이나 홍수 따위의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함. □산□□ (3)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 (7)창자. 속마음. 그 녀석이 하는 짓을 보니 ~이 뒤를린다 (9)집 앞에 버려진 아이. 주로 자식이 없는 집 앞에 버려지며 보통 그 집에서 키운다 (11)두부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음식 (12)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고난 것 (14)차려 놓은 밥상의 한쪽 언저리나 그 가까이 (16)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19)바닷물에서 해엄을 치거나 즐기며 놀 (21)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띤 물체 (22)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 좋다 (24)산간 지대에서,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바닥에 대는 넓적한 덧신 (28)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본□□ (29)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과 베는 베개. 원□□□

세로열쇠

(1)날치기, 소매치기 따위의 행동이 날쌔 좁도둑이나 그 무리 (2)이가 쭈시거나 몹시 아픈 증상 (4)공원 등지에 물을 뿜어내도록 만든 설비 (5)끼니 외에 떡이나 과일, 과자 따위의 군용식을 먹음 (6)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나옴 (8)재산 가운데 가장 값나가는 물건. 음식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음식 (9)어떤 사업이나 연구 따위에서 세운 공적 (10)입쌀로 지은 밥. ~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11)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우스개, 익살, 해학 (13)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놓는 언저리 (15)일 년 내내 잎이 늘 푸른 나무 (16)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사기나 유리로 만든 그릇. □□사□ (17)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마련한 넓적한 돌 (18)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 어제였죠 (19)성 주위에 둘러 판 못 (20)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23)설탕을 탄 오미자국이나 꿀물에 과일·꽃잎 등을 넣고 실백을 띄운 음료. 수박 ~가 시원하다 (25)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세우는 금속막대 (26)물을 들임 (27)한가운데

스도쿠

| | | | | | | | | | |
|---|---|---|--|---|---|---|---|---|---|
| | 4 | | | | 3 | | 2 | | |
| | 5 | | | 6 | 7 | 2 | 1 | | 4 |
| | 2 | | | 8 | 4 | | 3 | 6 | |
| 9 | 1 | | | 7 | 3 | | 2 | 8 | |
| | | | | | | | | 3 | |
| 2 | | | | 1 | | | | | 9 |
| 5 | | 6 | | | | | 9 | | |
| 4 | | 3 | | 1 | | | 6 | | |
| | | | | 5 | 9 | | 7 | | |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8 | 4 | 7 | 9 | 6 | 5 | 2 | 8 | 1 |
| 8 | 5 | 9 | 7 | 1 | 2 | 3 | 6 | 4 |
| 2 | 1 | 6 | 4 | 8 | 3 | 9 | 7 | 5 |
| 6 | 7 | 4 | 8 | 9 | 1 | 5 | 3 | 2 |
| 1 | 3 | 5 | 6 | 2 | 4 | 7 | 9 | 8 |
| 9 | 8 | 2 | 5 | 3 | 7 | 4 | 1 | 6 |
| 5 | 9 | 3 | 1 | 4 | 8 | 6 | 2 | 7 |
| 4 | 6 | 1 | 2 | 7 | 9 | 8 | 5 | 3 |
| 7 | 2 | 8 | 3 | 5 | 1 | 9 | 4 | 6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카드 정보 (Card Info) |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8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렌트, 좋은매물
 주인은퇴, S. Riverside CA 지역
 (213)249-1893 샘킴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차콜온돌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허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강

1-213-210-9720,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살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들과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꽃맛 생대추 따러오세요..

개장일 9월 16일 일요일 (약 2주간)

No 화학비료 살충제

농약 생대추 가격 You Pick \$5/LB
 대추밭입장료 \$5/1명 단 10LB 이상구매시 1LB로 반환

신선농원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농장개장시간 10시~5시 [일요일도 OPEN] **714-833-4988**

준비물: 운동화, 면장갑, 모자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축

창간 23rd 기념

한인 동포들의 든든한 벗,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부동산 경매 상담 환영합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주택매매, 상가매매 상담
전화 환영합니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